

Social Thriller

# 검정 봉투

(Black envelope)

변준석

010-7123-3065

truejune@naver.com

# 기획서

구분	내용
작품명	검정 봉투 ( Black envelope )
장르	소셜(social) 스릴러
기획 의도	온라인에서 폭력과 범죄를 장난하듯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얼굴을 감추고 무책임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던 것처럼, 세상 앞에서도 그러길 바래. 이제 니들 차례니까!!
로그라인	“쓰레기 한 명을 소각한다면, 당신은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등장인물	<p>이지민(32)      <b>“좋은 사람?? 요즘 세상에 호구되기 딱 좋은 말이야~”</b></p> <p>디지털 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유튜브 검정 봉투 를 운영 중이다. 검정 봉투 로 얼굴을 가린 채 매주 인성 쓰레기 후보 3명을 선정하고, '좋아요' 수를 가장 많이 받은 최종 쓰레기를 유튜브에서 소각시킨다. 경찰 근무 도중 악성 민원인과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은 뒤 디지털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며 장난 반 정의감 반으로 검정 봉투 를 시작했다. 구독자 100명이 채 안 되던 유튜브 검정 봉투 에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치솟고, 별 볼 일 없던 지민의 일상이 폭주하기 시작한다.</p> <p>동은철(43세)      <b>“세상은 더 망가져야 돼. 분노와 불행은 내 돈 줄이니까!!”</b></p> <p>뉴노멀시대에 다크호스로 떠오른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 보스. 시중 은행보다 싼 이자와 친절로 만들어진 수많은 빚쟁이들을 좀비처럼 부린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특히 고객 중에 좌파와 진보 성향의 걸리면 장기는 물론 피부까지 탈탈 털어 팔아버린다.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이지만, 내면은 극도로 냉혈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다. 기존의 불법 도박 조직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이다.</p> <p>한수현(54)      <b>“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 근데 쉽지가 않네..”</b></p> <p>워라벨을 추구하며 명퇴가 꿈인 형사. 한때 강력계 에이스였지만 노안에 요실금으로 현재는 널널한 생활안전계로 전환했고 날이 안 좋으면 곳곳에 상처가 도져 무지 예민해진다. 향이 좋은 드립 커피보다 달달한 커피 믹스를 더 좋아하고, 화 안 내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 비싼 명상 앱까지 구매했다. 최근에 전출 온 관할구역에 검정 봉투 와 연관된 사건이 일어나 워라벨이 물건너 갔다.</p>

정세봄(15) "좋은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언니처럼요~"

할머니 폰을 찾기 위해 디지털 폐기물 센터까지 찾아온 여중생.  
또래들과 달리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아날로그적 감성이 충만하다.  
폰과 컴퓨터보다 손글씨로 쓴 편지와 직접 만든 선물을 좋아한다.  
영동하고 정 많은 성격으로 차갑게 굳어있던 지민에게 봄날같은 존재다.

구박사(38) "진실?? 좇까. 다들 욕하고 괴롭힐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필요한 거야~"

자극적인 주작 영상이 들켜 구독자 49만에서 망해버린 어그로 유튜버.  
유튜브 '검정 봉투'가 인기를 얻자 시기심과 복수심으로 지민을 노린다.  
한때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꿨으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착한다.

박보현(53)

촉망받던 IT 개발자였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린 뒤 세상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수의 검정 봉투 들.

줄거리

디지털 폐기물 센터에서 일하는 지민은 유튜브 채널 '검정 봉투'를 운영하고 있다.  
검정 봉투 로 얼굴을 가린 채 매주 인성 쓰레기 후보 3명을 선정하고,  
'좋아요' 수를 가장 많이 받은 최종 쓰레기를 소각시킨다.  
경찰을 그만둔 뒤 계속된 취업 실패와 분노로 자존감이 바닥인 지민에게  
장난 반 정의 반으로 시작한 검정 봉투 는 나름 위안이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구독자 100명도 못 넘겼고, 밀려오는 현실적인 압박에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검정 봉투 를 접는다.

다음 날 한산하기만 하던 유튜브 '검정 봉투'에 '좋아요'와 '구독자' 수가 치솟는다.  
'검정 봉투'에 선정되어 소각시킨 인성 쓰레기가 실제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검정 봉투 에는 인과응보라는 환호와 무책임함을 탓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독자와 좋아요 수에 지민은 검정 봉투 를 다시 시작한다.

검정 봉투 에 새로 선정한 쓰레기 후보들이 올라가자,

이번엔 후보 쓰레기들의 제보 사진과 영상들이 폭주하고,

광고와 협찬까지 뒤따르자 점점 고무되는 지민,  
더 과격한 쓰레기 후보들을 업로드하는데...

하지만 참혹한 사체로 발견되는 ‘검정 봉투 ’에 선정된 최종 쓰레기.  
게다가 검정 봉투 에서 소각된 이전 쓰레기까지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당황하는 지민.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검정 봉투 구독자와 좋아요 수!!  
결국 경찰 추적까지 닥쳐오자 지민은 ‘검정 봉투 ’를 폐쇄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삭제했던 ‘검정 봉투 ’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열리고,  
짜통 검정 봉투 에 새로운 쓰레기 후보 3명이 업로드되는데...

그 후보 중에는 지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올라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악행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거나 가공된 것들이다.  
지민은 절박한 맘에 짜통 ‘검정 봉투 ’ 운영자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사실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

짜통 ‘검정 봉투 ’에 올라온 쓰레기 후보를 집요하게 노리는  
검정 봉투 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괴한들.

지민은 탐욕과 광기로 폭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검정 봉투 ’로부터  
숨겨져 있던 진실과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 1. 검정 봉투 유튜브

검은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 화려한 색감과 장난스러운 배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한 가운데 검정 봉투 를 쓴 사람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몸을 돌리다 획 쏘아보는 검정 봉투 , 감춰진 두 눈에서 장난기와 진지함이 공존한다.

검정 봉투 (목소리가 수시로 바뀌며) 안녕하세요. 검정 봉투 입니다~ 아.. 역시 거짓  
말은 힘드네요..

솔직히 전..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하루에도 끝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때문이죠.  
비닐, 플라스틱.. 그 중 최악은 역시 인간 쓰레기들이죠~ 갑질, 인성 파탄에 사람  
피 말리게 만드는 악행까지. 이런 쓰레기들이 뿜어내는 독 때문에 웃음과 행복이  
사라져갑니다. (한 숨) 휴우...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걸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무능하신 정부와 높으신 분들이겠쎄. 근데 웃긴 건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왜??.. 원래 쓰레기들은 힘 쎈 것들에겐 무지 공손하니까~ 그럼 누가 고통 받을까요?  
당연히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그 쓰레기들을 방관해왔던 좆밥.. 바로 우리들이죠~  
ㅋㅋ~ 그러다 문득 생각 났습니다. 독성 쓰레기를 활활 태워 없애듯 인간쓰레기도  
소각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깨끗해질까? 사라진 웃음과 행복이 돌아올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독성 쓰레기 후보 셋을 엄선했어요~

화면 가운데 떠오르는 쓰레기 후보 3명.  
현상금 걸린 범죄자 수배 전단처럼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들이 함께 뜬다.

1. 후원금을 전용해 명품 구입과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환경단체 대표
2. 수면 마취 때 여환자를 성추행한 의사.
3. 시가 총액 70조 원을 상장 폐지하게 만든 가상화폐 회장

검정 봉투 이들 중에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최종 쓰레기로 선정되어 소각  
될 것입니다~

(목소리 힘주며) “쓰레기 한 명을 소각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ㅋㅋ~

3명의 후보 위에 카운트 다운 타이머가 뜨고,  
그 밑으로 시뻘건 불꽃이 익살스럽게 타오른다.  
.. 암전!!

## 2. E-WASTE 폐기물 집화장 - 오후

검은 화면 위로 육중한 중장비 기계 소리 들려오고.  
화면 밝아지면, 기계 팔을 치켜든 굴착기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쏟아져 내린다.

오래된 스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노트북들.  
포클레인 운전석의 지민(32), 한 치 오차도 없이 폐기된 전자기기들을 분류해 내고,  
지민의 포클레인에 따라 주위 작업자들이 전자 제품들을 수거한다.

폐기된 각종 전자 제품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가는 디지털 폐기물 센터 E-WASTE.

### 3. E-WASTE 작업장 - 오후

작업대에서 폰과 컴퓨터에서 부품을 해체하고 있는 지민.

주위 동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메모리와 하드 디스크를 분리해 낸다.

그때 MZ 스타일의 사무실 예은이가 폰을 보며 지민 옆에서 얼쩡거린다.

지민 (보지도 않고 작업하며) 꼭 퇴근 직전에 불러. 야근수당도 안 주면서 말이야.

예은 (폰으로 쇼츠 보며) 그쵸~ 그쵸~

지민 노동청에 확 신고해 버릴까보다. .. 니네 아빠 사장님은 왜 그런데?!

예은 (입 삐죽) 내 알바비에서 밥값 집값 다 까고 준다니까요. 개빡치게!!

이거 물려받으면요. 확 다 밀고 썰끈한 클럽 지을 거예요. 그때 언니가 도와줘야 돼요.

지민 클럽 여는데 내가 무슨...

예은 술장사에 짬새 안 끼면 바로 셔터 내린다잖아요. 아는 짬새 많을 거라던데..

지민 ('광!!' 신경질적으로 부품을 내려 놓는다) !!

예은 (탄정) 남친을 짬새로 구하는 게 나겠쥬? .. 암튼 빨랑 오래요. 우리 아빠 사장이요~

기분 잡쳤는지 하던 작업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 일어서는 지민.

### 4. E-WASTE 사무실 - 오후

문서를 흔들며 지민에게 다가오는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반 민머리 황사장(57).

황사장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뽕을 뜯네. 니미..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지민 낼 건 좀 내고 살쥬. 돈 굶어모아 어따 써요?

황사장 어디긴?! 니들 월급에 점심 주고 간식까지 챙겨주려면 택도 없지~ 알지? 낼까지!!

지민 걸리면 철장 간다니깐...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는 황사장, 지민 얼굴 일그러진다.

황사장 너 짬새하다 찢리고 월세 못내 밥까지 거를 때.. 손 내민 분이 누구시더라?

지민 아... 또 그 지겨운 멘트 안 나오나 했어. 한 번 더 하면 100번째야.

황사장 수수료 10%~ .. 아니면 탄 데 맡기고.

지민 지난번에 반 밖에 안 줬었으면서...

황사장 (서류 건네며) 부가세에 소득세 뺐지. 이 몸이 계산은 또 확실하잖냐.

지민 (서류 받아 가며)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황사장 (지민 얼굴 이리저리 살피며) 요즘 페이스가 영 켕해. 설마.. 아직도 준비해?

지민 (얼굴 굳어진다) ..

황사장 하고 싶은 거 하다 쫓 된 인간 여러 봤어~

지민 (눈 번뜩) 남 인생!! ..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다.

황사장    그래. 우린 돈 벌어야지~ 그래야 밥도, 월세도 해결하지. .. 알지? 내일 퇴근 전까지~

황사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 들고 나가는 지민, 얼굴에 짜증과 피곤함이 한 가득이다.

## 5. E-WASTE 지민 작업실 - 저녁

-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불 꺼진 E-WASTE.

외진 곳에 있는 지민 작업실만 불이 켜져 있다.

경찰 법규책을 여기저기 확인하며 황사장 벌금 고지서를 살피는 지민.

벌금 항목에다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황사장 톡으로 전송한다.

그때 폰 울리고, 이번 달 카드값에 대출 이자 메시지가 뜨고,

한숨을 내쉬는 지민, 옆에 모아둔 메모리와 하드 디스크를 바라보는데...

## 6. 검정 봉투 유튜브

검은 화면 점점 밝아지면, 키치적인 배경 뒤로 검정 봉투 를 쓴 사람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 획 쏘아보는 검정 봉투 !!

검정 봉투 (텐션 올리며) 안녕하세요. 검정 봉투 입니다. .. 솔직히.. 안녕치 못합니다. 무척요..

하루에도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쓰레기들 때문이죠..

그럼, 이번 최종 쓰레기로 선정된 후보는 누구까요??

화면 가운데 3명 후보들과 ‘좋아요’ 수가 나타나고, 3번 신회장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검정 봉투                    역시... 무려 30조를 태워 먹고 뺏스런 한 솔론 회장님이 최종 쓰레기로 선정됐습니다.

출소 후 솔론2를 만들겠다며 펀드를 모았단데요. 무려 1,000억! 그것도 일주일 만에!!

누군 평생.. 아니 1000년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거하게 또 슈킹하겠죠?

그래서 검정 봉투 가 있는 겁니다~

검정 봉투 가 익살스러운 몸짓을 하자,

솔론 신회장 사진이 불꽃이 이글거리는 소각장으로 툭 떨어지고,

장난스런 비명과 함께 시뻘건 불꽃 위에서 오징어처럼 쪼그라지며 사라지는 솔론 회장

검정 봉투                    그리고, 공지 있습니다~ .. 이번 회를 끝으로 검정 봉투 를 쉬려고 합니다.

워.. 구독자도 100명 못 넘고, 댓글은 더 안습!! 무려 3년 동안인데 말이죠. 흑흑~~

다행인 건, 보는 사람이 적어 슬퍼할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 ㅋㅋ~~

키득거리는 검정 봉투 , 뭔가 가슴 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 듯 잠시 말을 멈춘다.

검정 봉투 ... 휴.. 잤있고, 자극적인 곳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검정 봉투 가 버틸 수 있겠어요?

암튼.. 지금까지 검정 봉투 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궁서체’님!! 그동안 혼자 고독하게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난스럽게 몸동작하며) 그럼 이만 떠나립니다. 여러분들도 안녕~~

## 7. 지민 원룸 - 밤

검정 봉투 를 머리에 쓴 유튜버가 검정 봉투 를 벗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지민이다.  
그때 댓글이 뜨고, **궁서체** 다.

궁서체 아쉽습니다.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었는데..  
지민 (힘없이 웃으며 키보드)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100회 채우려고 했는데.. ㅋ  
궁서체 93회도 엄청난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서체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또 뵈 수 있겠죠?  
지민 ..모르겠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  
궁서체 모두 다 잘될 겁니다. 멀리서나마 검정 봉투 님의 건투와 행운을 빌겠습니다.  
지민 궁서체님도요~

댓글을 마치며 힘없이 웃는 지민, 이전에 업로드된 검정 봉투 를 확인하는데,  
93회분의 검정 봉투 들, 좋아요, 댓글을 단 사람이 궁서체 한명, 대부분 100회 뷰를 못 넘겼다.  
검정 봉투 를 끄는 지민, 숨을 크게 쉬더니 공무원 시험서를 펼친다.

## 8. 버스 -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공시 인강을 들으며 출근하는 지민.  
주변 사람들도 무표정한 얼굴로 폰을 본다.  
흔들리는 버스지만 인강 보는 걸 놓치지 않으려는 지민, 그때 동기 카톡이 오고.  
지민, 열지도 않고, 공시 인강을 듣는다.

## 9. E-WASTE 작업장 - 오전

무표정한 얼굴로 폰과 컴퓨터에서 부품을 분리하는 지민.  
이전과 달리 지민의 속도가 늦어져 작업할 부품들이 쌓여만 간다.  
실수로 부품을 떨어트리는 지민, 멍하니 보다 그대로 작업한다.  
일제히 지민을 쳐다보다 자기 작업 하느라 분주한 주변 작업자들.  
점심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들려온다.

## 10. E-WASTE 사무실 앞 - 오전



식당으로 향하는 지민, 사무실 앞이 웅성웅성 소란스럽다.  
심드렁한 황사장에게 사정사정하는 백팩을 멘 여중생 새봄.

황사장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 안 된다면 안돼!!  
새봄 (고개 숙이며) 귀찮게 안 할게요.. 방해 안 되게 제가 잘...  
황사장 요즘 것들은 물건 소중한 줄 모르고 버릴 땐 언제고...  
역지 부리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학생이면 학교에 있어야지..  
이 시간에 수업도 빠지고 말이야. 네 부모도 알아?!

새봄 진짜 중요한 폰이거든요.. 제가 꼭..  
황사장 돈 갖고 와. 부모님이랑. 그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눈치 보는 경비를  
쏘아보며) 그리고 정씨!!! 일 좀 제대로 해. 회사가 동네 놀이터야?  
애 하나 처리 못 하고 무슨 경비질??!! 또 이러면 알뜰없는 줄 알아!!

경비 정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는 황사장.  
난감해하는 정씨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새봄, 백팩에 멘 곰 인형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런 새봄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 외면하고 식당으로 향하는 지민.

## 11. E-WASTE 식당 - 오전

배식판에 밥을 담은 지민, 한눈에 봐도 맛 없어 보이는 반찬을 신경질적으로 담고,  
빈자리로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작업자들이 식사 대신 폰을 보며 한마디씩 한다.

작업1 천벌 받은 거야. 천벌!!  
작업2 전세금 빼서 몰빵하자마자 상폐되고, 마누라가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었다니까!!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어휴...  
작업3 (폰 화면 검색하며) 이거 은근 짬있네. 후보들이 끝판왕인데~  
작업2 이참에 나도 해봐? 잘하면 역대 연봉도 있다잖아?  
작업1 아이템은?  
작업2 모르긴 몰라도 올릴 놈들 수두룩 할 거야.  
(슬쩍) 우리 황사장님은 안 올라오시려나? ㅋㅋ.. 소리 좀 더 키워봐~~

옆 테이블 쪽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지 먹는 등 마는 등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민.  
식판을 들고 나가다 멈칫!! 작업자들이 보고 있던 폰을 본다.  
눈이 점점 커지는 지민!!

## 12. 강남 계단/로비 - 오전

폰으로 통화하며 술집 계단을 내려가는 수현(48), 얼굴에 짜증이 몰려 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짙은 주름과 몸이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뒤통댄다.

수현 .. 그러니까 뭐하러 아침까지 술 쳐먹고 지랄이니.  
 김반장 (F) 분명 영업 관리니 뭐니 .. 트집 잡을 겁니다. .. 문제 없죠?  
 수현 발령받은 지 잉크도 아직 덜 말랐구만!!  
 회사, 집, 무릎.. 고혈압까지... 제대로 된 하나 없어.  
 김반장 (F) 요실금은요?! 달릴 때 마다 찢끔찢끔 한다면서요?  
 수현 이 자식이..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과도 울겼구만... 이렇게 안 도와주니?!  
 김반장 (F) 뉴스 나가면 개떼같이 모여들 겁니다. 사망자 누군지 들으셨죠?  
 수현 안 봐도 뻔하지. 하루 술값이 내 월급보다 더 나오는 데서 뒤흔 인간일테니...  
 김반장 (F) 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도 있고, 괜히 기자들 자극 말라고...  
 수현 지나 잘하라 그래!! 아주 웃겨!!

열 받아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수현.

계단에서 내려서자, 경찰과 감식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남 최고급 술집답게 화려하고 모던한 술집 로비.

더 들어가면 고급 대리석 계단이 보이고, 그 밑에 구겨져 있는 시체 한 구가 보인다.

머리 위로 다리와 팔이 기이하게 뒤엉켜진 남자 사체다.

한숨 쉬는 수현, 뻘질해 보이는 장형사가 다가온다.

수현 뭐냐? 저 상황은??  
 장형사 솔론.. 알죠?  
 수현 신상 술?!  
 장형사 하긴 스마트폰도 안 쓰는 분이 알 턱이 없지.  
 수현 나..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쉽게 좀 말해.  
 장형사 솔론이라고.. 작년까지 무지무지하게 핫했던 코인 있거든요.  
 수현 가상 화폐인가.. 뭔가 하는??  
 장형사 1000원에 시작해서 500만원 넘어 갔으니까.. 한.. 오천 배 쯤 올랐나?  
 수현 .. 오..천배??!! 내 한 달 월급 넣었으면...  
 장형사 한 방에 200억 뺏기는 거죠.  
 수현 .. 씨바.. 뒤지기 전에 정보 좀 주고 가지..  
 장형사 그게 한때 시총 50조원까지 갔거든요.  
 수현 (구겨져 죽은 사체를 보며) 50조?? 저 인간이야?!  
 장형사 각종 스포츠키에 월세 3,000만원 고급빌라, 호화 요트에 여자 연예인들까지..  
 누릴 것 다 누리다.. 50조를 홀라당 다 태워 먹고 감옥 갔죠.  
 수현 근데 여긴 왜?  
 장형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사면 받고 나왔는데..  
 수현 (적의감) 또 김앤장?!  
 장형사 (고개 저으며) 개들보다 더 썩은 애들요.  
 수현 ..누..구..?  
 장형사 솔론으로 돈 털린 호구들요~  
 수현 개네들이면 저 인간 못 죽여 화병 나아지.  
 장형사 제 말이요. 근데 솔론 대표가 재판 과정 내내 호언장담했거든요.  
 솔론은 자신의 분신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운영해 왔다고.

나가면 업그레이드된 솔론2로 재기해서 꼭 보답하겠다고!!

수현      그걸 믿었다고?!

장형사    더 웃긴 게 뭘지 아세요? 솔론2 런칭한다고 SNS에 글 올리니까..  
몰린 돈이 1,000억이랍니다. 그것도 하루만에~

수현      그 돈으로 여기서 출소 기념 파티를 벌인 거고?

장형사    어제 하루 밤 술판에 뿌린 현금이 얼마 줄 아세요? 30억이랍니다. 30억.  
강남 술집 에이스들이 총출동했다네요.

수현      어마어마한 개말종 찹새끼구나~ (둘러보며) 약은?

장형사    말하면 입 아프죠. 술판에서 마약 5종이 나왔는데.., 니미.. 히로뽕에 코카인,  
헤로인, LSD, 거기다 신종 약까지.. 무슨 마약 쇼핑물 차린 줄 알았다니까요~

수현      하여튼 저만 새끼들은 똥질 때도 참 거하게 싸질러놓고 가~

장형사    근데.. 여긴 왜 일?  
강력계 배신 때리고 생활 안전계로 뿔잡아요. 워라벨 경찰 될 거라면서.

수현      아... 여기가 내 지도 관할이다.

장형사    ㅋㅋ.. 완전 똥 밟았네~ 기자들이랑 투자금 넣은 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텐데~

수현      그 똥물 안 튀게 잘 처리하라신다. 우리 서장께서..

장형사    .. 근데 진짜예요? 선배 부사수 때 엄청 갈굼당했다면서요?

수현      그 빠리한 놈이 서장 될 줄 알았으면 잘 챙겨줄 걸..  
씨바.. 이번 생은 진짜 똥이다. 똥!!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수현, 주위 경찰들이 쏘아보자 한 숨 쉬며 다시 넣는다.

수현      (계단 밑에 구겨진 솔론 대표를 보며) .. 술에 마약, 여자들까지..  
장형사    실족사죠~

수현      (주변을 둘러보며) CCTV는?

장형사    이런데 CCTV 달면 누가 그 돈 주고 술 먹으러 와요. 안 봐도 딱인데..

수현      (장형사를 쏘아본다) !!

장형사    네.네.. 국과수에 혈액샘플 보내놓았으니까 결과 나오면 일 빠따로 연락 드릴게요.  
..쉬엄쉬엄해요. 계단 내려올 때 보니까 무릎도 시원찮더만..

수현에게 꾸벅 인사하고 가는 장형사.

수현은 계단 밑에 몸이 뒤엉킨 채 기이하게 죽은 솔론 대표를 바라본다.

그러다 뒤에 있는 벽 장식 인형 쪽으로 다가가더니 인형과 눈싸움을 하고.

수현      (뚫어지게 보다 씨익) 이 새끼 봐라~

귀엽게 웃고 있는 인형 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수현, 콩알 크기의 블루투스 카메라다!!

### 13. E-WASTE 지민 룸 - 오후

모니터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진 지민.

마지막 쓰레기에 선정돼 소각했던 솔론 대표와 관련된 댓글들이 빠르게 달린다.

“천벌 받은 거네.”

“회사 돈 한 톨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더만.. 추징금 2천억을 한 방에 냈대요.”

“감옥 갈 때 줘 짤 것도 악어 눈물이겠죠? ㄸㅅㅅㅅㅅ”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악담은 쯤..’

“사필귀정!!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나 봐요. 저렇게 뒤흔들 걸 보면.”

“내 손으로 대가리 못 뺄게 아쉽죠 ㅠㅜ”

얼굴이 굳은 채 검정 봉투 의 ‘좋아요’ 수와 댓글을 쏘아보는 지민,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숙인다.  
곧.. ‘YES!!’ 환호성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는 지민!!

#### 14. 은철 사무실 - 밤

오만원 묶음 6다발을 쥐고 못 믿겠다는 듯 눈을 꿈뻑거리는 초췌한 중년 남자.  
맞은 편에는 티타늄 안경을 쓴 선해보이는 은철(41)과 냉혹하게 생긴 아귀가 서 있다.

중년남 (연신 조아리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약속은 지키시구요~

중년남 (돈다발 움켜쥐며) 이번 일 마무리되면.. 기간 내에 꼭 갚겠습니다.

은철 정확한 분이라 계약서 잘 보셨겠지만,  
연체없이 대출금 갚기만 하면 대한민국 어느 은행보다 나은 조건일 겁니다.

중년남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은철 (웃으며 일어나며)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은철에게 고개 숙인 뒤 오만원 묶음을 옷에 쑤셔 넣고 황급히 나가는 중년남.

아귀 .. 다른 곳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은철 (미소) ..

아귀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른 조직들을 상대하는 건 아직..

은철 지금 나간 고객 말이야. 그린연대 이사라고 했지?

아귀 환경과 교수에 시민단체 대표로 차기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갈 유력 후보입니다.

은철 저런 부류 잘 알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이거든.

과오나 실패를 절대 못 참아. 지고는 더 못 살고. 그래서 무조건 다시 와.

아귀 ..

은철 잔챙이들은 다른 조직에게 던져줘. 우리 고객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야. 무조건!!

은철의 말을 묵묵히 듣는 아귀, 고개 깊이 숙이고 나간다.

은철은 책상 위에 신주처럼 모셔놓은 흑백 사진을 보며 웃는데,

맑스와 레닌 사진이다!!

#### 15. 시내 버스 - 아침

‘좋아요’와 ‘구독’ 수가 5만이 넘어가는 검정 봉투 .  
폰으로 검정 봉투 를 확인하는 지민, 이전의 짜증과 피곤함은 찾아볼 수 없다.  
창가 너머 떠오르는 해를 보며 환하게 웃는 지민.

## 16. E-WASTE 작업장 - 오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폰과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분리하고 있는 지민.

황사장 뭐야? 그 온화한 페이스는?? 로또 당첨됐어?!  
지민 쓰레기 치우는 게 좋아졌거든요~  
황사장 갑자기?!  
지민 세상이 그만큼 깨끗해지잖아요~  
황사장 이야~~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뭐라 해도 돈벌이가 켈 중하지.  
일한 만큼 따박따박 잔고도 쌓이고, 장담해. 조만간 월세 대신 전세금 구한다~

그때 지민 폰 올리고, 메시지를 보던 얼굴에 미소가 감돈다.

## 17. 술집 - 저녁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쪽쪽쪽쪽~! 쪽쪽쪽쪽~!"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동기들과 술 게임을 하는 지민.

친구1 (잔 부딪히며) 뭘 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춰? 5년 만인가?  
친구2 공시 준비한다며?  
지민 (술 마시며) 공시는 무슨..  
여친구1 (술잔 부딪치며) 얼굴 봐라. 확 폼터~~  
여친2 맞아~ 이전에 노랑진 전철역에서 본 적 있거든. 그때 진짜 썩어있거든. 지금은 윤이 나.  
친구1 주식? 코인?? 뭔데?? .. 친구끼리 좋은 정보 공유하며 살자. 뭔데? 응??  
지민 태도를 바꿨지. 세상이 달라지더라구~

웃는 지민, 잔을 들고, 친구들은 지민과 잔을 부딪친다.  
그때 맞은편에서 폰을 보며 키득거리는 친구3.

친구1 넌 계속 폰이냐? 여친?!  
친구3 (고개 저으며) 요즘 핫한게 있거든~  
여친구1 후방주의.. 그 땀 거지?  
친구3 (폰 보며) 그것보다 더 죽이는 거~  
여친구2 뭔데? 뭔데??  
친구3 .. 응.. 검정 봉투 ..

술 마시던 지민, 멍청하고. 다른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술을 마신다.

여친구1 안 그래도 사무실 사람들이 뭐라던데.. 뭔데 그게??

친구1 검정 봉투 ? 쓰레기 버리는 유튜브야? ㅋㅋ

친구3 응. 쓰레기인데.. 인간 쓰레기야.

술 마시던 친구들, 일제히 친구3을 쳐다본다.

솔론 대표가 소각되는 동영상 보여주는 친구3.

친구1 .. 솔론 아냐??

친구2 네 전세금 홀라당 다 태운 그 새끼??

여친구1 말도 꺼내지 마. 우리 아빠, 오빠, 남친.. 다 물렸어.

그 인간 죽었다며? 근데 검정 봉투 랑 뭐 상관?

친구3 여기서 인간 쓰레기로 뽑혀 불타 뉘졌거든~

여친구1 검정 봉투 가 솔론 대표 죽은 걸 예언했다는 거야?

친구1 예언은 무슨..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그런 거 많잖아?

친구3 다르다니까. 검정 봉투 는.

친구1 얼굴 가리고 정의로운 척하는 인간치고 괜찮은 인간 못 봤어.

조희수 올리려고 어그로 끌다 결국 지들도 거들나.

친구2 차원이 달라.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거든.

검정 봉투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 놀라는 눈치다.

그런 반응에 말없이 웃는 지민.

여친구2 여기 자료가 빵빵하네. 사진, 동영상에 메시지까지.. 장난 아닌데. 어떻게 구한 거지?

친구3 그게 검정 봉투 가 찌이라는 증거지. (지민에게 보여주며) 넌 안 봐?

지민 .. 하는 일이 바빠..

친구1 그거 다 조작이야. 그걸 어떻게 구해 올려? 짹통 동영상, AI 뭐 그런 거겠지.

친구3 오늘 하루에만 구독자 수가 10만 몰렸어.

여친구2 하루 10만?? 대박!!

친구2 1,000 넘기가 얼마나 힘든데..

친구3 이거.. 은근히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어쨌든 솔론 대표 뉘진 걸 예언하거잖아. 검정 봉투 가 말이야.

여친구2 얻어 걸린 거지. .. 아님 무당인가?? ㅋㅋ..

(소리) .. 그거 불법인 거 알지?

보면, 반듯하게 생긴 검은 정장 차림의 상진이 웃으며 들어오고, 지민을 보고 멈칫한다.

지민과 어색하게 웃는 상진을 번갈아 보며 탄청 부리며 술을 마시는 친구들.

그런 상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지민, 방긋 웃는다.

## **18. 술집 앞 - 밤**

기분 좋게 취한 친구들이 하나 둘 택시를 타고 헤어진다.

마지막에 남은 지민과 상진, 어색함에 무의미하게 폰을 확인하는 지민.

상진 .. 하는 일은?  
지민 좋아~ 적성에도 맞고.  
상진 ..경찰 관뒀다는 소식 듣고 연락했었는데..  
지민 관두기는.. 찢린 거지~ .. 그리고 연락 피한 건 나니까 신경 써지마.  
상진 (쓸쓸한 미소) ..  
지민 보기 좋더라. TV에서.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표정이 저렇게 되구나 싶더라구.  
내 옆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얼굴이었거든~  
상진 겨우 초보 딱지 땀어. .. 공시 준비한다며??  
지민 (고개 저으며) 경쟁률이 워낙 험하잖아~  
상진 경찰 잘 어울렸었는데.. 나쁜 놈들 그냥 못 지나쳤잖아.  
지민 ..그랬...었나?? .. 지금은 그냥 그냥 살아.  
상진 (미소) ..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  
지민 그래. 너도~

둘 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버스가 온다.

상진 (버스 보며) .. 저 버스지?  
지민 (고개 끄덕) ..  
상진 .. 좀.. 미안하네..  
지민 (미소) 무슨!! 난 고마운 게 더 많은데~  
상진 (그제야 편안하게 웃는다) 그래도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 잘 될 거야!!  
지민 (웃더니 결혼청첩장을 흔들며) 행복해라~ .. 결혼 축하하고~ 진심으로!!

얼른 버스에 올라타는 지민과 담담하게 손을 흔드는 상진.

## 19. E-WASTE 지민 작업실 - 새벽

불 꺼진 E-WASTE, 지민 작업실에만 불이 켜져 있다.

상진의 청첩장을 보는 지민,  
만감이 교차하는지 짧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조심 청첩장을 서랍에 보관한다.

PC를 켜 검정 봉투 유튜브를 확인하는 상진, 어느새 구독자가 50만이 넘었다.  
이 추세라면..., 100만도 가능할 것 같다..  
책상 안에 있는 외장 하드를 꺼내는 지민.  
컴퓨터에 연결하자 모니터에 폴더가 주르륵 뜨고,  
디지털 폐기물에서 모아왔던 쓰레기 후보들이다.

다음에 업로드할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들을 찾는 지민.  
그때 폐기물 집화장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 20. E-WASTE 폐기물 집하장 - 새벽

라이트와 삼단봉을 들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는 지민.  
어슴푸레 어둠 속 폐기물 더미 위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뒤지고 있다.

바짝 긴장한 지민, 삼단봉을 들고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빠썹!!’ 지민 발밑에서 소리가 나고,  
순간, 폐기물 더미 위에서 우당탕 굴러 떨어지는 검은 실루엣.  
얼른 다가가는 지민, 라이트를 비추고 삼단봉을 겨누는데,  
‘아야야...’ 머리를 매만지며 웃는 백팩 멘 중학생 새봄이다.

(소리) 폰 찾으러 왔다는 거야?! 이 새벽에??

## 21. E-WASTE 지민 작업실 - 새벽

대답 대신 숙인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새봄.

지민 (황당) 애가 겁을 상실했네. 이거 불법 침입이야? 우리 사장 알면 감옥 가!!  
새봄 .. 꼭 찾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민 누구 폰? 네 폰?!  
새봄 (고개 젓는다) ..  
지민 친구 폰??  
새봄 (또 고개 젓는다) ..  
지민 (버럭) 그럼 누구껀데??!!  
새봄 .. 할..머니요..  
지민 할..머니??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오든가.  
새봄 ..안 계세요.  
지민 (멈칫) 그럼 할머니라도...  
새봄 돌아가셨어요. 올 봄에요..

화내려다, 한숨을 내쉬는 지민, 새봄은 계속 고개 숙이고 있다.

지민 사는 곳은?  
새봄 ..청소년 쉼터..  
지민 거긴 이 새벽에 나와도 뭐라 안 해?! 입소 규율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냐.  
새봄 예산 삭감됐다고.. 선생님들도 거의 안 와요.  
지민 그렇다고.. 아... 진짜..  
새봄 폰 찾아야 돼요. 반드시요.

얼굴을 찌푸리던 지민, 종이에 뭔가를 휘리릭 적어 새봄에게 건네준다.

지민 필요한 구비 서류. 이것 있으면 정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돈벌레 황사장도 어찌지 못할테니까.  
새봄 (연신 꾸벅) ..고맙습니다.  
지민 대신 큰 기대는 하지마. 지금까지 찾은 사람 없으니까.  
새봄 그래도... ..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일어나 다시 꾸벅 인사하고 지민 작업실을 나가는 새봄.  
백 팩에 매달린 곰 인형이 이리저리 춤을 춘다.  
한숨 쉬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흐르는 지민, 외장하드에서 검정 봉투 후보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런 지민을 멀찍이서 훑쳐보는 시선 하나.  
보면,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광기와 적의감으로 가득 찬 구박사(38)다.

## 22. 검정 봉투

검정 봉투 에 업로되는 영상, 카톡 메시지다.

- 누가 알바해서 샤넬 클러치백 사달래?  
남들은 그냥 이벤트로 주던데.. 오빠는 날.. 늘 돈만 아는 나쁜년으로 만들어.
- 오빠 미래가 안 보여.
- 죽겠다는 말 지겹다 지겨워.. 누군 안 힘들어? 왜 맨날 징징돼.  
그렇게 힘들어 죽겠으면 함 죽어보든가.

검정 봉투 에 올라온 카톡 메시지에,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 23. 백화점 명품 샵 - 오전

백화점 명품 샵에서 옷과 백을 고르는 시연(25),  
한껏 포즈를 취하며 자기모습을 폰으로 찍느라 정신없다.  
폰에 카톡 올리고, 아이디어가 '새벽까지 미친년.. '다.

- 어디??
- 신상 쇼핑 중. 오늘 방송있잖아.
- 괜찮아?
- 아침에 해장했지. 넌 어제 꼬알라 돼서 근돼한테 업혀 가더니만.. ㅋㅋ
- 너.. 잘하면 소원 풀겠더라~~
- 뭐가? 의사 소개팅이야??
- 네 방송 1위.. 시간 문제야~"
- 미친년!! 뭔데??!!
- 네가 올린 거 아냐? 여기 가봐~

카톡으로 전송되는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검정 봉투 메인화면이 뜬다.

“쓰레기 한 명을 소각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장난스러운 음악과 함께 떠 있는 3명의 쓰레기 후보.

얼굴이 굳어진 채 유튜브 검정 봉투 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연.

1. 길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 불태워 죽인 남자
2. 수업 듣는 여학생 속옷을 지속적으로 촬영해온 변태 학원 원장.
3. 군대 간 남자친구 자살할 때 클럽에서 원나잇한 어장 관리녀 BJ

3번을 클릭하면, 클럽에서 남자들과 찐하게 엉켜있는 시연이다.

군대 가기 전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현재 BJ방에서 활동 중인 동영상도 올라와 있다.

자신에게 ‘좋아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며 놀라는 시연.

시연        검정 봉투 ??!! 어떤 씨발 새끼지? 지난 번에 잔 오빠가?  
(한가한 자기 BJ방을 보며) 오늘 존나게 달아오르겠는 걸~~ ㅋㅋ

## 24. E-WASTE 지민 작업실 - 오후

어두운 화면 아래 흔들리는 카메라 시선으로 신음소리 들려오고,

차 안에서 거칠게 정사를 나누고 있는 남,녀.

카메라를 향해 여자 얼굴이 드러나는데, 정사 장면을 셀프로 찍고 있는 시연.

시연        이거 올리면 가방 하나 살 수 있을까?  
남자        얼굴 가리면 엠지엠. 까면 샤넬~  
시연        미친 새끼. 당연히 모자이크지.  
남자        씨발년... 왜? 요즘 돈 딸려?  
시연        언제 안 그런 적 있었냐?  
남자        윤철이 그 새끼는?? 일 안 나가?!!  
시연        지난 달 군대 갔잖아. .. 씨발.. 조공 바칠 새끼 새로 구해야 되나 싶어.  
남자        강 나가리지. 네년보다 어리고 탱탱한 년이 얼마나 많은데~  
시연        닥쳐라.. 아가리!!  
남자        ㅋㅋ.. 윤철이 군발이라 했지? 그럼 연락해.  
시연        뭐하러?  
남자        임신했다고 그래.  
시연        씨발.. 미친 새끼가!! .. (그러다 씨익) 그래 볼까?  
남자        윤철이 찐따 새끼라면.. 군대 탱크 팔아서라도 양육비 쏜다.  
시연        그래.. 군대 잡혀 있을테니까 당분간 확인도 못 할테고..  
(남자 몸 만지며) 씨발 새끼.. 넌 잔대가리가 존나 섹시해. 몸은 더 죽이고~~ ㅋㅋ

남자 위에 올라타는 시연, 짐승처럼 격렬하게 정사를 나누는 둘!!

지민이 새로 올린 동영상 밑으로 댓글들 반응이 무지 뜨겁다.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지민.

- 개 쌍년이네!!
- 전 여친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 자매야?
- 저년이랑 붙은 먹은 놈은 어떤 개자식이야? 다음 쓰레기 후보 확정!!
- 아.. 좀 전에 운동하다 본 것 같아요. 양재천에서
- 좌표 인증?
- 금방 지나왔는데 못 봤는데.. 다시 가볼까요?

시연과 잔대거리 남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주룩룩 올라오고.

빠르게 치솟는 검정 봉투 좋아요와 구독자 수!! 방금 70만을 넘겼다.

그때 유튜브에 쪽지가 날아오고, 광고 제의 글이다.

성인 온라인 회사가 보낸 광고 유형, 기간, 소재, 예산, 지불 조건이 적인 문서들이다.

지민        진짜 월급 이상도 가능하겠는데. .. 그래..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했어~

## 25. E-WASTE 작업실 밖 - 밤

미소가 가득한 채 작업실을 나오는 지민, 문고리에 하얀 봉투가 걸려있다.

안에 바나나 우유와 팔빵이 있고 겉에는 귀여운 글로 적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좀 뉴트로인가여?  
언니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새봄이 놓고 간 간식과 귀여운 스티커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 지민,

바나나 우유와 팔빵을 한 입 먹더니, 제법 맛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더 베어문다.

## 26. 양재천 - 밤

풀 메이크업에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양재천을 달리는 시연.

주위 시선을 즐기며 달리는 시연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하다.

폰이 울리자, 애플 워치로 번호를 확인하더니 발걸음을 멈춘다.

시연        (전화 받으며) 왜 또 전화질이야? 남친이랑 싸웠어?!

친구        .. 켜..참은 거지?!

시연        당근이지. 너 말대로 1위 먹었잖아. B1방 1위면 하루 별풍선이 얼마데.. ㅋㅋ~

친구        그거 말고.

시연        또 뭐??

친구        ..검정 봉투 ...

시연        개들 덕분에 B1방 일등 먹은 거야. 고마운 미친 새끼들이지.

친구        .. 아니.. 다시 확인 해봐. 아무래도 이상해.

시연        걱정마셔. 키보드만 두드리는 개진따 새끼들이니까~

친구 .. 그..러겠지?

시연 담주 라운드 나가자. 이 언니가 1등 기념으로 쏠 테니까~~

전화를 끊고 웃으며 검정 봉투를 확인하는 시연, 얼굴이 굳어진다.

새롭게 업로드된 사진과 동영상, 댓글들이 주룩룩 달려있고, 지금 양재천에서 폰 보는 사진까지.

움짤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시연, 이내 겁먹은 얼굴로 주춤주춤 달아나는데,

곧, 사라지는 시연 뒤를 쫓는 검은 실루엣!!

## 27. 고시텔 - 새벽

모니터 앞에서 컵라면, 소세지, 에너지 음료를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누군가의 뒷모습.

검정 봉투 에 선정된 쓰레기 후보들을 체크하며

여러 계정을 사용해 빠르게 댓글을 입력하고, 사진과 동영상도 연달아 업로드한다.

곧, 후보 순위가 변동이 되자 폰으로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하는데,

양재천에서 겁에 질려 달아나는 시연 사진과 동영상이다.

모니터에 비친 놈의 눈빛이 섬찟하다.

## 28. 은철 사무실 - 새벽

대형 모니터에 온라인도박 화면들이 보이고, 수백 개 창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하루 거래액을 확인하는 은철, 30억을 넘겼다.

계속 올라가는 온라인 도박 액수!!

그때 폰 울리고, 번호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전화를 받는 은철.

은철 .. 동은철입니다.

보스 (목소리) 역시 우리 은철이야~ 매일 신기록 갱신중이라며?

은철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보스 밥 한번 먹어야지?

은철 ..네..

보스 축하도 할 겸.. 우리 미래도 얘기할 겸.. 얼굴 보자고~

은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 도박 액수를 바라보는 은철, 폰으로 유튜브 검정 봉투 를 확인한다.

## 29. 양재천 - 아침

귀여운 포메리안과 함께 아침 양재천을 걸어가는 할머니.

그때 같이 가던 하얀 포메리안이 갑자기 짖기 시작하고.

‘와양!! 와양!!’ 흥분한 포메리안을 달래느라 애먹는 할머니.

할머니 두비. 두비야 .. 애가 왜 이래?? 아침 댓바람부터..

하지만 맹렬히 짓으며 수풀 속으로 들어가는 포메리안, 할머니도 이끌려 따라 들어간다.  
우거진 수풀이 흔들리고, 포메리안 짓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

### 30. 양재천 - 오전

양재천 수풀 우거진 곳에 둘러쳐진 노란 폴리스 라인.  
검시관과 형사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현장으로 들어오는 수현, 우거진 수풀 사이에 우스꽝스럽게 화장된 얼굴로 죽은 시연을 본다.  
후배형사가 다가오자 얼굴을 찌푸리는 수현.

수현      아침부터 웬 호출?? (딱 봐도 알 것 같다) 성폭행??.  
장형사    (고개 젓는다) .. 깨끗합니다.  
수현      (의외다) 살해 흉기는? 양재천 다 뒤지려면 퇴근은 다 했어야.

후배형사가 턱으로 가리키자, 피 묻은 망치가 시연 옆에 반듯하게 놓여 있다.  
얼굴을 찌푸리는 수현, 쓰러져 있는 시연을 찬찬히 훑어본다.

수현      성폭행 아니고, 흉기는 보란 듯이 옆에 있고.. 나 강력계 아냐.  
장형사    (폰을 보며주며) 동영상 떼거든요.  
수현      검정 봉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검정 봉투 를 넘겨보며) 뭐야 이게?!

검정 봉투 에는 소각당한 최종 쓰레기가 시연이고, 그 전에 죽은 솔론 대표까지 있다.  
빠르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는 수현, 눈빛이 번뜩인다.

### 31. 출근 버스 - 오전

흔들리는 출근 버스 안에서 검정 봉투 를 확인하고 있는 지민.  
근소한 차이로 최종 쓰레기에 뽑힌 시연이가 자동 소각되었다.  
댓글들을 확인하는 지민 얼굴이 굳어진다.

### 32. E-WASTE 지민 작업실 - 오전

- 참엔 매운 맛이더만, 이제 툭딱이네  $\pi\pi$ .
- 좇망 기운이 물씬물씬!!
- 광고 문의가 들어왔다더만.., 그새 배가 쳐 불렀나??
- 내 말이.. 슬슬 다른 곳으로 환승해야 할 듯.
- 검정 봉투 운영자 게이야!! 형이 충고하니까 잘 들어.  
물 들어올 때 좇빠지게 저어. 망하는 거 금방이다. ㅋㅋ

‘구독자’와 ‘좋아요’수를 체크하는 지민, 유입되는 사람들이 완만한 정체 그래프다.

한숨쉬는데, 댓글이 달린다.

궁서체 재충전 잘하셨습니까??

지민 덕분에요~

궁서체 다신 못 빌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지민 그런데 걱정이네요. 반응이 점점.. 이려다 이전으로.. ππ

궁서체 원래 이쪽이 그렇습니다. 금방 풀었다.. 식었다..

지민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궁서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지민 .. 추천할 만한 후보라도..

궁서체 요즘 이 친구가 핫하더군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궁서체가 링크를 보내주고, 클릭하면, 이전 검정 봉투 에 나왔던 쓰레기 후보가 뜬다.  
그제야 얼굴이 화색이 도는 지민.

지민 쓰레기는 역시 재활용하는 게 맛이긴 하죠. .. 고맙습니다~

궁서체 검정 봉투는 저에게는 빛과 소금입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했던 쓰레기들 중에서 좋아요와 구독자가 치솟을 아이템이 지민 앞에 있다.

### 33. 파인다이닝 - 저녁

히노키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파인다이닝.

요리 하나하나에 감탄을 연발하며 맛있게 먹는 현서(28).

맛은편에는 고급 정장 차림의 이우진(37), 요리 대신 현서만 바라본다.

현서 (우진 시선이 부담스러운 지 먹는 걸 멈추며) 입맛에 맞지 않으신가 봐요?

우진 현서씨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서요~

현사 여기 예약만 6개월 걸린다던데.. 하루만에~ 진짜 능력자이신가봐요?

제 금융 상담도 해주실거죠 ?

우진 (잔에 와인 따르며) 당연하죠. 저의 즐거움인걸요~

와인을 현서 잔에 능숙하게 따르는 우진, 팔목에 파텍 필립 노틸러스가 은은하게 빛난다.  
우진과 잔을 부디 치고 마신 뒤 일어서는 현서.

현서 (핸드백 들며) 자꾸 저만 보니까.. 제 모습이 궁금해져서요~

우진 (거울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대답 대신 환하게 웃는 현서, 화장실로 향하고.

현서가 자리를 비우자 폰을 확인하는 우진, 입을 삐죽이더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다.

우진 물량 빼. 당장!!

놈1 전부 말입니까?

우진      괜히 욕심부리다 탈 나. 방은 새로 개설하면 되니까. 총수익은?  
 늬1      오늘 방 폭파하면.. 70억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우진      한 달 내내 돌렸는데 70억이라.. 이번 고객들은 가난한 새끼들인가봐.  
           .. 10% 니네들 나눠 쓰고. 담주부터 새 맘으로 존나게 달리자.  
           이번엔 있어 보이는 호구들로 골라. 아... 그리고.. 오늘 준 거..  
 늬1      한 알이면.., 8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우진      그래? 와인 잔에 4알 넣었는데.. 괜찮겠지?  
 늬1      저도 3알 밖에 사용 못 해봤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대신 내일까지 홍콩 지나 몰디브까지 가 있을 겁니다~ ㅎㅎ  
 우진      효과 좋으면 보너스 기대해. 마무리 잘하고~ ㅋ  
 늬1      네. 대표님!! 맛있는 식사~~ 되십시오. ㅎㅎ

현서 와인잔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우진.

화장을 고친 현서가 다가오자 표정이 다시 바뀌며 해맑게 웃는다.

우진      걸어 올 때 봤죠? 사람들 시선요~  
 현서      (앞으며) 제가 좀 이쁘긴 하죠~ .. 근데 좀 더운 것 같은데..  
 우진      (와인 잔 흔들며) 설마 취한 건가요?  
 현서      (와인잔 마시며) 에이.. 별써요? 이래봐도 저 술 썬 편인데요~  
 우진      (와인 잔 내려놓고 일어나며) 술도 깰 겸 드라이브나 할까요?

### 34. 도로 - 밤

빠르고 몽환적인 EDM 음악과 함께, 번도로를 질주하는 은빛 애스턴 마틴.  
 앞에 보이는 자동차들을 모두 추월하며 빠르게 달려 나간다.

### 35. E-WASTE 입구/사무실 앞 - 아침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E-WASTE로 들어가는 지민.

사무실 앞이 시끄럽다!!

열받은 황사장과 눈치 보는 작업자들 앞에 백팩 멘 새봄이가 포클레인을 가로막고 있다.

황사장    안 비켜?!!  
 새봄    (서류를 보여주며) 이거 있으면 폰 찾을 수 있데요.  
 황사장    (눈치 보는 작업자를 다그치며) 김씨! 오늘 밥값 안 할 거야?!  
 김씨    (우물쭈물한다) ..  
 황사장    저만 종이쪼가리가 더 무섭다 이거지?  
 김씨    그래도 구청 명령서라..  
 황사장    니미.. 저따위로 사니까 평생 호구로 살지. (김씨를 밀치며) 비켜!!

새봄이 가로막고 있는 포클레인으로 올라가는 황사장, ‘부릉!!’ 시동을 건다.

김씨와 작업자들은 기겁하며 물러나고, 새봄은 다가오는 포클레인을 노려본다.

‘부릉! 부릉!!!’ 굉음을 울리며 새봄에게 다가가는 포클레인!!

몸을 움츠린 새봄, 서류를 높이 쳐들더니 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찰칵! 찰칵!!’ 플래쉬 터지고.

당황한 얼굴로 새봄과 황사장을 지켜보는 지민.

점점 다가서는 황사장 포클레인!! 아예 눈을 감고 구청 서류를 치켜 든 새봄!!

결국, 새봄 바로 앞에 포클레인이 멈춘다.

씩씩거리며 내린 황사장, 포클레인 바퀴를 발로 차더니 사무실로 들어가고,

새봄은 지민을 보더니 구청 서류를 흔들며 빙그레 웃는다.

놀라 새봄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작업실로 들어가는 지민.

### 36. E-WASTE 지민 작업실 - 아침

한숨을 내쉬며 들어오는 지민.

그때 폰 알람 소리에 확인하는데, 새로 업로드한 검정 봉투 다.

1. 아르바이트비 떼어먹고 성추행까지 한 피자집 사장.

2. 퇴직자와 노년층을 노리는 사기 주식 리딩방 대표.

3. 수백 채 빌라를 전세 놓고 고의적으로 파산한 악질 임대사업자.

기대와 달리 썰렁한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들 창을 보며 얼굴이 무거워지는 지민.

그때 쓰레기 후보 댓글 창에 사진이 하나가 올라온다, 노인들이 사무실 앞에 몰려 있는 사진.

지민 (사진을 뚫어지게 보며)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거지..

### 37. MBK 펀드 사무실 - 오전

폰에 올라온 사진, 점점 사람들이 움직이더니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온다.

문이 굳게 닫힌 사무실 앞에 몰려 있는 사람들.

노인들 얼굴에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하다.

그들 사이에서 사무실 문에 붙어 있는 투서들을 폰 카메라로 찍는 지민.

노년2 젊은이도 여기 투자했어?

지민 ..아... 네...

노년3 우린.. 부부 퇴직금 전부를 넣었어.

지민 .. 근데 정우진 대표.. 전과가 있다던데..

노년1 다 가짜 뉴스야!! 미국 하바드 졸업장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모건 스탠리 미국 최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진도 확인했어.

노년3 맞아!! 내 앞에서 그쪽이랑 통화하는 것도 직접 들었단니까. 영어로!!

노년1 우리 정대표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어. (목소리 낮추며) 젊은이도

이럴 때일수록 말조심해. 안 좋은 소문나면 큰일 나. 다 죽는단니까..



### 38. 빌딩 계단 - 오후

폰을 만지며 계단을 빠르게 내려오는 지민.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 창에 금방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다.

‘전과범 정우진 사기에 피눈물 울컥거리는 노인들.’이라는 자극적인 글과 함께!!

곧, 정우진에 대한 욕설과 댓글들이 주루룩 달리고.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 ‘좋아요’와 구독자를 수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 지민.

### 39. E-WASTE 폐기물 집하장 - 밤

어둠이 내려앉은 을씨년스러운 폐기물 집하장.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폐기물 더미 위에서 폰을 찾고 있는 새봄,

주변 폰을 뒤적이다 휘청하더니,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

아픈 지 얼굴을 찌푸리린 새봄, 폐기물 더미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

(소리) 다들 그렇게 시작해.

고개 돌려보면, 새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지민, 새봄이 있는 폐기물 더미로 올라간다.

지민 폐기물 더미에서 몇 시간 구르다 보면 팔 다리도 아파오고 머리도 지끈지끈해져.

그러다가 생각해. .. 잃어버린 게 어찌면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없으면 뭐 어때? ..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 시켜.

새봄 (지민을 바라본다) ..

지민 지금까지 잃어버린 물건 찾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새봄 (폰 찾는다) .. 포기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폐기물 더미 위에서 폰을 찾는 새봄을 보며 한 숨을 내쉬는 지민.

### 40. 경찰서 생활안전과 - 아침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수현.

죽은 솔론 대표와 BI가 최종 쓰레기로 선정되어 소각된 걸 확인 중이다.

이전에 소각된 쓰레기 후보들을 훑어보는데...

인형 눈에서 빼낸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수현.

그때 수현 폰이 울린다.

### 41. 고층 오피스텔 - 아침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최고급 오피스텔.

호사스러운 인테리어와 고가의 물건들이 자랑하듯 꾸며져 있다.

침대 옆 대리석 바닥에는 시뻘건 피 웅덩이에 코를 박고 죽은 벌거벗은 남자가 엎어져 있다.

사건 현장을 감식하느라 바쁜 경찰들과 죽은 남자를 유심히 살피는 수현.

장형사 (다가오며) 정우진. 38세. 주식 선물 사기로 3년 복역하다 작년에 출소.

현재 불법 리딩방 5개를 운영 중이구요. 피해액만 천억이 넘습니다.

수현 (집안을 둘러보며) 이걸 다 누리고 살려면 무자게 바쁘게 살아야겠네. .. 용의자는?

형사 (고개를 돌리며) 저기..

장형사가 가리키는 쪽에 피범벅 된 현서가 몸을 휘청대며 횡설수설하고 있다.

장형사 지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나 봐요. 범행 도구를 찾았는데, 저 여자 지문이 확실하답니다.

수현 (주위 살피며) 외부 흔적은??

장형사 없습니다. cctv도..

수현 모조리 고장이지?

장형사 (멈칫) 아... 예...

수현 뒤편 새끼 봐. 오른쪽 목을 깊숙이 찌서 한 방에 경동맥을 잘랐어.

약에 취한 상태로는 불가능해.

장형사 그럼...??

수현 누군가 몰래 들어와 정우진 목을 뒤편 뒤 사라진 거지.

약에 찢은 여자 손에 흉기를 쥐게 하고. 혈액검사 확인 해봐.

저 정도면 치사량 수준의 GHB 성분이 검출될 거야. 정우진 저 새끼가 먹인 거겠지만.

(현서를 보며)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것만 해도 평생 운 다 쓴 거지.

장형사 (얼굴 찌푸리며) 아... 또 날 밤 까게 생겼네.. (주변 경찰들에게) 야!! 주변 건물 cctv 모두 수거하고 정문 쪽 있는 거 모조리 다 챙겨.

시뻘건 피 웅덩이에 코를 박고 죽은 정우진 주위를 둘러보는 수현, 책상으로 다가간다.

컴퓨터 마우스를 건드리자 화면 켜지고, 작업 중이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뜬다.

집 안 여러 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수현 이 새끼 봐라..

벽과 천장, 주변 물건에 설치된 여러 개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편집되고 있다.

마우스로 이전 동영상을 확인하는 수현.

- 약에 취한 채 휘청이는 현서를 집으로 데리고 온 우진.
- 침대 위에서 현서가 잘 보이게 위치를 조정하고 포장을 풀 듯 옷을 벗긴다.
- 약에 취해 느릿느릿 옷을 벗는 우진, 그런데 우진 뒤로 검은 실루엣이 얼른거린다.
- 인기척에 고개 돌리는 우진, 동시에 목에 깊숙이 박히는 칼!!
- 하얀 침대 위에서 튀어나온 피범벅 우진, 대리석 바닥을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게임하듯 우진 몸 곳곳에 칼로 내려찍는 누군가의 뒷모습.

놀랍게도 놈의 얼굴에 검정 봉투 가 씌워져 있다!!

눈이 확 커진 수현, 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 정우진의 ‘좋아요’ 수가 급증하고, 그 밑에 방금 올라온 동영상 이 있다.  
클릭하면, 정우진이 살해당하는 동영상!!

수현 (흠칫 놀라며) ..뭐야.. 이게??!!

그때 수현 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날아들고!!  
“검정 봉투 가 누군지 궁금하면... .. 여기여기~~”  
장난스런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클릭하는 수현, 폰에 지도상의 좌표가 찍힌다!!

## 42. 버스 - 오후

버스 안에서 검정 봉투를 확인하는 지민, ‘좋아요’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미소짓고.  
그때 창밖으로 백팩을 맨 새봄과 친구들이 지나간다.  
서로 웃고 떠들며 좋아라하는 친구들과 달리 새봄 얼굴이 어둡다.  
친구들이 새봄을 밀치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버스에서 지켜보던 지민, 한숨 내쉬며 고개 돌린다.

(소리) 어떻게 말귀를 못알아 처먹냐~

## 43. 골목 - 오후

‘퍽!!’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새봄.  
‘짜르르’ 웃으며 장난치는 친구들과 전자 담배를 내품는 주연.  
그 옆에는 겁에 질린 여중생 경주가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주연 우리 새봄이.. 어떡하냐? 수업 끝나면 매번 이럴텐데..

주연이 고개짓 하자 새봄에게 발길질 하는 친구들.  
새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발길질을 버텨낸다.  
더 겁에 질린 경주, 어쩔 줄 몰라 울기 직전이다.

주연 (겁에 질린 경주를 보며) 너도 참 의리 없어. 누구 때문에 저년이 개고생인데..  
엄마가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  
새봄 (겁에 질린 경주와 달리 이 악물고 주연을 쳐다본다) ..  
주연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봐. 레벨 올리자. 최대 맥스로!!

주연 지시에 새봄에게 다가가 발로 짓이기는 친구들.  
그때 ‘동작 그만!!’ 어둠 속에서가 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지민이다.  
놀라 겁을 집어먹는 불량들과 달리 반면에 웃음이 흐르는 주연.

주연      동의 없는 촬영은 명예 훼손인데~  
 지민      집단 폭행은 형법 4조 7항~  
 주연      뭐래?! 우리 촉법인데~  
 지민      촉법이라도 집단 폭행에 폭행 사주면 형법 6조 8항 추가.  
             게다가 니들 부모님도 처벌 대상이야. 인터넷 확인해 봐.  
 주연      (씨익 웃는다) 짹새세요?! 왜 씹선비질인데!!  
 지민      (폰 흔들며) 짹있잖아~ 학교에 제출할까? 아냐 인스타가 좋겠다. 조회수 터지게~

지민 말에 주연을 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불량들.

주연      아... 그거 올리면 우리 새봄이 죽은 목숨인 거. 알죠?  
 지민      상관없어.  
 주연      뭐래 . 씨발?!  
 지민      네 얼굴 보면 기분이 더러워져서 말이야~ 딱 주인공 괴롭히는 애. 단역, 그치?  
 주연      뭘 개소리야? 우리 아빠가 압구정동 탑티어 성형 닥터라구!!  
 지민      개짓는 소리 그만하고 이쯤에서 꺼지는 게 해피 엔딩이야.  
 주연      해피 엔딩은 리얼에 없는거 알죠? 시간은 아줌마가 아니라 내 편이라구요.  
             우리 새봄이 널 또 볼거거든요~  
 지민      .. 엔딩 찍어볼래?

새봄에게 친한 친구마냥 손 흔들며 사라지는 주연, 불량들도 함께 우르르 몰려 사라진다.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지민.

지민      휴... 미친 게 누굴 아줌마래?? ... (새봄 보며) 괜찮아?  
 새봄      (영망진창 옷을 툭툭 털더니 고개 끄덕) .. 대신... 배 고파요~~

#### 44. 분식집 -오후

항당해하는 지민, 새봄이가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오뎅을 엄청 먹어댄다.

새봄      .. 안 드세요? 정말??  
 지민      식성 좋다?  
 새봄      배만 든든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가요~

새봄의 천진난만에 어이없어하는 지민, 웃는다.

지민      처음 아니지?  
 새봄      늘 그래요. 저에게 문제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ㅋㅋ  
 지민      아니!!  
 새봄      ??!  
 지민      내가 얘기해줬던 서류.. 쉬운 거 아니거든.  
 새봄      제가 좀 미련해서요~

지민 서류 다 준비해서 황사장 앞에 들이민 거 .. 내가 두 번째야.  
 새봄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며) ..첫번 째는 누구..?  
 지민 너랑 비슷한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 쉽게 하지마. 익숙해지니까.  
 .. (냅킨에 뭔가 적더니 새봄에게 준다)  
 새봄 744699?? 뭔데요?  
 지민 출입문 비번. 담 넘어가지 말고 문 열고 들어와.  
 대신 돈벌레 황사장한테 걸리면 난 상관 없는거야.  
 새봄 (비번 쪽지를 보며) .. 언니는.. 좋은 사람 같아요~  
 지민 (스스스하게 웃으며) 좋은 사람?? 사양할래. 요즘 세상에 호구되기 딱 좋은 말이거든.  
 대신..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오는 거야.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떡볶이를 입에 다 넣는 새봄. 오뎅 국물까지 비운 뒤 환하게 웃는다.

#### 45. 대형 마트 - 저녁

‘하겐다즈 하프 갤런, 라퐁비에트 버터, 보르도 치즈’를 쇼핑카트에 가득 담은 지민.  
 정규직 구하면, 자신에 대한 선물로 사려고 했던 지민의 최애 상품들이다.  
 곧, 들어올 유튜브 수익금을 생각하며 호탕하게 카드를 긁는 지민, 그때 ‘검정 봉투’ 알람이 뜬다.  
 폰을 확인하던 지민, 놀라 쇼핑백을 놓아두고 뛰쳐나간다.

#### 46. 택시 - 밤

차 안에서 눈이 커진 채 검정 봉투 를 확인하고 있는 지민.  
 폰에는 자신이 흘린 피 웅덩이에 코를 박고 죽은 정우진 동영상 이 흐른다.  
 그 동영상 밑으로 달리는 댓글들.

- 목 따러 참수 부대 출동했음!!
- 사기 친 돈으로 저런 곳에 저 지랄 하고 살고 있었네. 찰지게 잘 뒤흔어~
- 내 손으로 모가지를 따려고 했는데.. 더 빠른 용자가 나타나셨군요~~
- 주작 티 난다. 그 새끼 피로 좀 더 진심을 담아봐!!
- 짹툽 영상이겠지만 통쾌! 상쾌!! 유쾌!!

오피스텔 바닥에 엎어져 죽은 우진 옆에서 검정 봉투 쓴 채 장난스럽게 포즈 취한 괴한 사진!!  
 곧, 검정 봉투 를 쓰고 피 묻은 도구를 장난스럽게 휘두르는 인증 사진들이 mim처럼 번진다.  
 미친 듯이 좋아요 수가 치솟는 검정 봉투 를 보며 몸이 떨려오는 지민.

#### **47. E-WASTE 지민 작업실/거리- 밤**

미친 듯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민.  
 쓰레기 자료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어 저장장치를 모두 쏘아 담는데.  
 그때 들려오는 인기척!! 새봄인가..

고개 돌리는데, ‘후두둑!!’ 머리에 검정 봉투 가 씌워지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지민.

(소리)    딱이네~

곧, 검정 봉투 벗겨지면, 검정 봉투 와 쓰레기 자료들을 흔들며 보이며 웃고 있는 수현.

수현      이지민!! 정우진 살해혐의로 체포한다.

- 멀찍이서 수갑을 채우는 수현과 끌려가는 지민을 찍는 카메라!!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구박사(38)와 고봉(24).

구박사    잘 봐둬.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 48. 경찰서 유치장 - 밤

유치장에 갇힌 지민, 당황한 얼굴로 철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취객1    형씨는 뭘 사고 쳤어? 말 해봐. 내가 컨설팅 해줄테니까.

지민      (대꾸 없이 폰을 확인한다) ..

취객2    (비틀대며) 여기 들어온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인간 없어.

진짜 들어올 나쁜 새끼들은 밖에서 땡땡거리고 사는데 말이야.

취객2    도움 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음 빨랑 연락해서 변호사 붙여달라고 해.  
없으면 내가 소개해줄 수 있고~

폰을 다시 보는 지민, 주소록을 확인해보지만, 딱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그러다 생각이 났는지 동기 단톡을 확인하는 지민,  
그곳에서 상진 카톡 프사로 들어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그때 유치장 문 열리고, 보면 얼굴이 굳어진 수현이다.

#### 49. 경찰서 복도 - 밤

앞서가는 수현과 수갑을 찬 채 뒤따르는 지민.  
발걸음을 멈추는 수현, 돌아서더니 지민을 노려본다.

수현      정우진, 최나리, 신권하.. 너지?

지민      아니라니까.. 진짜!!

수현      (쏘아보며) !!

지민      하.... 진짜... 내가 더 궁금해요!! 그 살인자 새끼가 누구지!!

수현      접속 IP 리스트가 곧 나와. 정상참작이라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게 좋아.

지민      (웃는다) ...

수현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가중 처벌로 모조리 추가해줄게.  
꼴 같잖게 경찰 한 적 있으니까 잘 알겠네.

지민      알죠. 잘. 경찰은 물증 확실하게 나왔으면 이딴 식으로 입만 안 털거든요.  
수현      .. 새끼가..  
지민      접속 IP 리스트는 외국계 회사라 씨알도 안 먹혔을 테고, 내 사무실에서도 딱히 물증  
          못 건졌겠쇼. 그러니 사람 불안하게 흔들어 뭐라도 엮어보려고 구라치는 거 아냐.  
수현      (지민에게 다가가며) 너잖아? 검정 봉투 !! 맞잖아?!!  
지민      (움찔) ..  
수현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어. 네 잘난 검정 봉투 덕분에.  
지민      (쏘아보며) .. 증거 있어요??  
수현      최소한의 양심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돈 몇 푼 벌려고 그딴 짓을 해??  
          그러니 경찰에서 찔리지!!  
지민      (살기 세상 제대로 돌아 갔어봐. 검정 봉투 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와락 지민 먹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수현.  
수현의 압박에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 지민, 수갑 찬 손을 내민다.  
매섭게 쏘아보던 수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수갑을 풀어준다.

수현      검정 봉투 꼭 계속해라. 곧 만날테니까. 내가 반드시 쳐넣어 줄게!!  
지민      (피식) 지킬 거 지키며 산 사람보다 어기고 반칙한 인간들이 더 잘 살더라구요.  
          법은.. 늘 늦으니까.  
수현      (움찔) ..  
지민      신권하. 김나니. 정우진.. 누구에게 당해도 찐 쓰레기들이었어요.

## 50. 경찰서 정문 - 밤

경찰서 문을 열고 나오는 지민.  
긴장이 풀린 탓인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는데, 찬바람이 몸을 더 움츠리게 한다.  
그런 지민 앞에 상진이가 두부를 흔들며 웃고 있다.

## 51. 거리/ 택시 - 밤

지민      어떻게 안 거야?  
상진      운 좋은 줄 알아. 담당 경찰서 둘다 봤지~  
지민      .. 어쩐지.. 지랄되던 형사가 그냥 내보내 줄 때 이상하다 했어..

말이 끊기자 어색해지는 지민과 상진.

상진      .. 괜찮은 거지? .. 검정 봉투 취재하고 있어.  
지민      (멈칫하다 걷는다) ..  
상진      한형사님.. 지금은 유흥업소 지도나 하는 형사지만... 한때 악소리 나던 분이셨어.  
          문제 생길 여지 있으면 정리해. 뭐든.  
지민      알아서 할게.

말없이 걷는 상진과 지민, 어색하다.

택시가 지나가자 얼른 손을 드는 지민, 앞에 택시가 멈춘다.

상진 ..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민 (택시 타며) 내 걱정 말고 새 신부에게나 잘해줘. 혼자 있게 만들지 말고~

택시에 탄 지민, 얼굴이 어둡기만 하다.

-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지민을 훑쳐보던 경찰, 폰으로 급히 메시지를 보낸다.

## 52. 은철 사무실 앞 - 새벽

폰으로 메시지를 보며 사무실에서 나오는 은철.

그때 ‘끼익!!’ 검은 SUV들이 주위를 에워싸더니 덩치들이 우르르 내린다.

막아서는 아귀와 부하들, 은철이가 제지한다.

덩치1 (히죽) 어르신들이 얼굴이 보고 싶다네~

순순히 검은 SUV에 올라타는 은철, 덩치들과 함께 빠르게 사라진다.

아귀, 폰으로 황급히 전화를 건다.

## 53. 보스 회의실 - 새벽

문이 열리고, 덩치들과 함께 들어오는 은철.

넒찍한 테이블에는 다른 조직 보스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며 웃고 있다.

그 뒤에서 은철을 노려보고 있는 보디가드 1,2.

은철이 다가가 테이블에 있는 조직 보스들에게 고개 숙인다.

보스1 오늘의 주인공 동은철이가 왔네~ (다른 보스들을 보며) 알지? 다들?

은철 (다시 고개 숙인다) .. 항상 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2 (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며) 우리 업장 매출이 반토막 났어. 듣보잡 너 때문에!!

보스1 (미소) 손해 분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보스3 문제는 그게 아니라카이!! 누군 하루 매출 1억 찌거리도 안 되는데..

어떤 새끼는 10억이 넘는다 안카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기라?!

보스1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께서 늦은 시간에 모여 지혜를 나눠보자구요~

보스4 건달 밥 먹고 산 지 30년 넘었지만,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

우리 애들이 당장 저 새끼 치자는 걸 간신히 막고 있다고!!

보스1 (은철을 보고 웃으며) ..자.. 사정은 들었을테고,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얘기할게.

은철 (고개 숙이며) 명심히.. 잘 들겠습니다.

보스1 상납금 올리자는 말도 있었는데.., 구리잖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양아치도 아니고.



그래서 뒷말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어. 동의하지?

은철 (고개 끄덕인다) ..

보스1 온라인 베팅 플랫폼을 공동으로 관리할 거야. .. 에브리씽... 이라고 했나??

보스2 지분은 섭섭지 않게 쳐줄게. 대신 우리가 보호해 주지. 완벽하게.

보스3 앞으로 전쟁이나 단속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카이!! 그냥 돈만 쓸어 담으면 돼.

보스4 우리 모두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거야. 네 골칫거리도 해결해주고.

보스1 에브리씽 만든 놈을 찾고 있다며?

은철 (미소가 흐른다) ..

보스1 진작에 얘기하지. 그쪽은 우리가 전문인데. 애들 전부 풀면 하루 안에 찾아.

보스2 그 새끼 잡아다 수익률 더 높이고, 하루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빨아 들이자고. 이참에 외국 애들까지 끌어들이고~

보스3 그럼.. K-도박 되는 기야?? ㅋㅋ..

보스4 이참에 국익 선양하는 거죠. 정부 표창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

보스1 어때? 자네 생각은??

보스들 뒤에 있는 보디가드 1,2,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은철 목을 따버릴 듯 쏘아본다.  
고개 숙였던 은철, 천천히 보스들을 쳐다본다.

은철 번거롭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모두 제 불찰과 어리석음 탓입니다.

보스1 보세요. 은철이 절마는 말이 통한다니까. 최고 학벌 출신이라 달라.

보스3 탄말 나왔으면 오늘 제삿날이었어. 운 좋은 줄 알아.

은철 여러 회장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가르침.. 깊이 새겨들겠습니다.

보스1,2,3,4.. 다들 승리감에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은철 다만 그 고마움.. 가슴으로만 받겠습니다.

보스1 (미소) .. 가..숨??.

보스들 (얼굴 굳어진다) !!!!

보스1 (웃음 터진다) ㅋㅋ...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냥 못 받지. 이해해~

보스1이 손을 들자 회의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검은 정장들, 은철을 에워쌌다.

보스1 긴 말 안 해. 지금부터 에브리씽은 우리가 관리해. 넌.. 갈아서 변기에 버릴 거야.

은철 (무표정하다) ..

보스1 에브리씽으로 하루 10억 찍으니까 네 세상 같지? 네 놈이 피눈물 흘려봐야 주제를 알지. 신용불량자 된 놈을 데려다 여기까지 키워졌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이 근본도 없는 듣보잡 새끼야. (뒤에 있는 보디1,2에게) 처리해!!

보스1 지시가 떨어지자, 시퍼런 칼을 꺼내 은철에게 다가가는 보디1,2 은철 뒤에 서고,  
보스1이 고개를 끄덕이자, 보디1이 칼을 치켜든다.  
순간, 보디1 목에 꼽히는 보디2 칼!!  
동시에 보스들 뒤에 있던 측근들이 칼로 보스2,3,4 목을 잘라버린다.  
붉은 피를 쏟으며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껌뻑이며 쓰러지는 보스2,3,4.  
부르르 떨고 있는 보스1에게 다가가는 은철.

은철 하루 10억? 거짓 뉴스야~  
 보스1 ..뭐??!  
 은철 그건 이미 찍었어. 오늘.. 100억 넘었나?고.  
 보스1 (동철에게 돌아선 부하들을 보며) ..니가 감히.. 어떻게...  
 은철 (검은 정장들을 보며) 먼저 연락 왔어. 돈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맡는 곳이잖아.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보스1. ..이..봐... 동철이.. 내가 잘 할게.. 제발..  
 은철 눈에 피눈물 나는 게 궁금했거든~ 이참에 함 보자고. 잘 봐 너도~

보스1 눈에다 칼을 갖다 대는 은철, 사정없이 두 눈을 갈라버리고.  
 ‘아악!!!’ 두 눈에 시뻘건 피눈물을 쏟아내며 쓰러지는 보스1.  
 동시에 부하들이 몰려들어 먹이를 나눠 가지듯 경쟁적으로 도륙한다.  
 보스1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아귀가 들어와 테이블 상석을 치우더니 의자를 빼준다.  
 다가가 자리에 앉는 은철, 아귀와 부하들 모두 은철에게 고개 숙인다.

은철 에브리씽 개발자. 데리고 와. 산 채로!! 수익금 5%다!!

은철 말에 눈이 번득이는 부하들, 빠르게 사무실을 나가고.  
 널찍한 회의실에 혼자 남은 은철, 폰으로 에브리씽을 여는데, 눈이 꿈틀된다.

#### 54. E-WASTE 지민 작업실 - 새벽

검정 봉투 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포맷하는 지민.  
 지금까지 모아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들을 삭제한다.  
 의심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작업실 여기저기를 살핀 뒤 불을 끄고 작업실을 나온다.

#### 55. E-WASTE 폐기물 집하장 - 새벽

폰 불빛으로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며 폰을 찾는 새봄, 손과 얼굴 여기저기에 검댕이가 묻어있다.  
 폰 불빛이 깜빡이다 꺼지고, 어두운 정적에 휩싸이는 집하장.  
 폰을 쳐보지만, 전원이 없는 지 요지부동이다.  
 순간 강렬한 불빛이 주변을 밝힌다.

지민 (다가오며) 나도 폰 찾으러 여길 왔었어. ..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  
 새봄 .. 찾았어요?  
 지민 (고개 흔들며) ..  
 새봄 쉽지 않네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구요,, .. 아무래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지민 소중한 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더라. (앞에 있는 폐기물을 뒤지며) 무슨 폰이야?  
 새봄 (폰에 흔들거리는 곰 인형을 보여주며) 이게 달렸어요. 할머니 생일선물이거든요~

웃는 지민, 폐기물을 뒤지기 시작하고, 새봄도 폰을 찾기 시작한다. 희미하게 날이 밝아온다.

## 56. 지민 원룸 - 새벽

정우진이 살해당하는 동영상에 ‘좋아요’와 ‘싫어요’ 수가 폭증하고 있다.  
댓글 창에는 정우진이 죽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하는 글들과  
살인은 어떤 이유더라도 명백히 범죄라며 비난 글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올라온다.  
한껏 달아오른 검정 봉투 를 굳은 얼굴로 지켜보는 지민,  
유튜브 검정 봉투 와 관련된 광고 문의 메일을 확인하더니, 검정 봉투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간다.

지민        아... 폼나게 살 고 싶었는데..

검정 봉투 를 바라보던 지민, 입술을 깨물더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  
지금까지 올라온 검정 봉투 의 사진과 동영상, 댓글들이 모두 넷속으로 사라진다.  
무척 아쉬워하는 지민 얼굴!!

## 57. 윤재국 자동차 - 새벽

어두운 도심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강직해 보이는 윤재국(62), 서류를 보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30%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자신이 1위 후보다.  
서류를 놓더니, 폰으로 검정 봉투 를 확인하는 재국.  
검정 봉투 에 올라온 쓰레기 후보들을 보더니, 통화버튼을 누른다.

## 58. 을지로 상가 - 새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심 속 오래된 상가.  
택배기사가 배송 상자를 들고 와 불 꺼진 상가 앞에 놓고 간다.  
곧, 문 열리고, 배송 상자를 재빠르게 가지고 들어가는 후드 쓴 누군가.  
다시 문 닫히고, 깊은 정적으로 빠져드는 낡은 상가, 화면 어두워진다.

## 59. 버스 - 아침

무겁고 우울한 음악과 함께 화면 밝아지면,  
도심을 달리는 버스 안의 무표정한 지민 얼굴.  
초점없는 눈빛으로 버스 안 사람들과 이리저리 흔들리며 출근을 하고 있다.

## 60. E-WASTE 작업 몽타쥬

- 음악 계속 이어지고.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지민.  
이전과 달리 포클레인이 울컥울컥 거린다.  
불안한 포클레인 움직임에 주위 작업자들이 멀찍이 떨어져 지민을 보며 수근거린다.

- 폰과 컴퓨터 부품을 분리하고 있는 지민.  
느린 작업 속도 때문에 지민 작업대에 수북히 밀리는 폐기물 전자 제품.  
지민을 찾아온 사무실 예은,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하는 지민을 보더니 가웃거린다.

- 사무실 앞에서 작업자들에게 지랄 갑질을 하고 있는 황사장.  
지나가는데 지민을 보고 부르지만, 그대로 지나치는 지민.  
그런 지민을 미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황사장, 씨익 웃는다.

## 61. E-WASTE 식당 - 오전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식당  
무표정한 얼굴로 배식판을 든 지민, 빈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는다.  
꾸역꾸역 입에 음식을 넣는 지민, 대충 먹고 일어나려다 멈칫!!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 폰을 보던 작업자에게 다가가 폰을 확인하는 지민.

**작업자    왜?? 남의 폰 갖고 지랄이야!!**

폰을 보며 눈이 점점 커지는 지민, 작업자 폰에는 계정을 삭제했던 검정 봉투 가 떠있다.  
새롭게 업로드된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와 함께!!

## 62. E-WASTE 사무실 앞 - 오후

폰으로 통화를 하며 황급히 걸어가는 지민.

지민        분명히 삭제했다니까요?  
센터        (소리) 확인한 바로는 어제 계정을 복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민        몇 번을 말해요. 내 손으로 직접 지웠다니까!!  
              게다가 내가 올리지 않은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센터        (소리) 말씀대로라면 해킹당한 것 같은데... 계정을 확인바랍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검정 봉투 계정은.. 대한민국 경찰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민        ..경..찰요??  
센터        (소리) 지금 검토 중인데..., 전화거신 사용자 분 연락처와 메일을...

얼른 전화를 끊는 지민,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 63. E-WASTE 지민 작업실 - 오후

‘덜컹!!’ 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오는 지민, 서둘러 컴을 켜고 유튜브 계정에 접속한다.  
하지만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고.  
유튜브에서 검정 봉투 를 검색한 뒤 접속하는 지민, 눈이 점점 흔들린다.

#### 64. 거리 - 오후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지민.  
택시를 잡으려고 하지만 대부분 예약된 택시라 지민을 그냥 지나친다.  
시간이 없는 지 거리를 달리는 지민, 얼굴이 일그러져있다.

#### 65. 검정 봉투 유튜브

화려한 색감과 장난스런 배경의 화면 앞에 검정 봉투 를 쓴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돌아보며 ㅋㅋ 웃음 짓는 검정 봉투 !!  
이전보다 더 장난끼가 넘친다.

검정 봉투                      안녕하세요. 검정 봉투 입니다. .. 아.. 솔직히... 요즘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그게 다 여러분들의 격렬한 사랑 때문이죠. 검정 봉투 를 평생 해야 될 것 같다는  
사명감까지 듭니다. ..ㅋㅋ~  
그래서 어김없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인간 쓰레기 후보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의 공정함을 위해 여러분들이 궁금해왔던 특별한 후보를 추가했습니다.  
.. 그게 누굴까요??~~

#### 66. 거리 - 오후

거리를 달리던 지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헉헉되는데..  
그때 빈 택시가 지나가자 도로로 들어가 앞을 가로막는다.  
‘끼익!!’ 급하게 정차하는 택시!!  
문을 연 지민, 황급히 택시 안으로 들어간다.

#### 67. 검정 봉투 유튜브

화면 가운데 떠오르는 3명의 후보들.  
현상금에 걸린 범죄자처럼 관련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들이 같이 뜬다.

1.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
2. 반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 폭행을 주도한 일진 여중생
3. 비겁하게 얼굴을 감춘 채 사실을 폭로하는 검정 봉투.

검정 봉투

(자신감에 가득 찬 채)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검정 봉투!!

즉 나를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

이들 중에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최종 쓰레기로 선정돼 소각될 것입니다.

자.. 그럼... “쓰레기 한 명을 소각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3명의 후보 위에 타임리미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밑으로 시뻘건 불꽃이 익살스럽게 타오른다.

## 68. 거리 - 저녁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민. 뛰어가다 넘어지지만, 몸 살필 틈 없이 다시 된다.

## 69. 지민 원룸 - 저녁

‘위잉!!’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켜지고.

모니터 암호창에 빠르게 입력하는 지민, 곧, 배경화면이 떠오른다.

곧바로 유튜브 검정 봉투 에 들어가자, 이전과 달라진 것 없는 검정 봉투 에 새 쓰레기 후보가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살의가 훨씬 짙게 느껴지는 검정 봉투 댓글들!!

지민 뭐야 이게? . (검정 봉투 계정에 들어가며) 누구지??!!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지만 입력한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메시지!!

당황한 지민, 컴퓨터 탐색기로 검색하고, 암호가 걸린 폴더에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지금까지 폐기물에서 캐내 보관해온 쓰레기 후보 자료들이다.

그때, 지민 머리에 씌워지는 무언가. .. 검정 봉투 다!!

놀라 돌아서는 지민 배로 파고드는 엄청난 충격!!

‘헉!!’ 단발마를 토해내는 지민, 바닥에 쓰러지고, 손에 테이프가 묶인다.

구박사 잘 찍고 있지??

조수 조희수 어마어하게 터지겠는데요~

지민 (검정 봉투 가 머리에 씌워진 채 막혀가는 숨을 몰아쉬며 ) ..누..구..??

구박사 내 목소리 잊었어? 실망인데~ .. 구박사~

지민 .. 구..박사??

구박사 씨바.. 기억도 못하네.. 너 때문에 100만 앞두고 유튜브가 폭파됐어. 덕분에 결혼할 년 떠나고, 신용불량자에, 지금은 약 없으면 잠도 못 자. 네 잘난 검정 봉투 덕분에~~

지민 .. 암 걸렸다 구라치고 치료비 챙기다 걸린..

구박사 이 년이 또 분노게이지를 상승시키네. (발로 지민을 짓이긴다) 고혈압에 안 좋구만.

지민 (숨 쉬려고 할때마다 검정 봉투 가 부풀어 오른다) ..후욱! ..후욱!!

구박사 똤지는 거 잘 찍어. 회장님에게 보내야 되니까.

조수 (카메라 이리저리 돌리대며) 앵글이 안 좋은데요.

구박사 예술 하니? 네 꺼 할 때 씨발 예술해!!.

구박사 발길질에 숨도 제대로 못쉬는 지민, 뭉가 쏟아지고,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다!!

구박사 이 정도면 바짝 구워질거다. 내가 당했던 것 처럼~~ ㅋㅋ

지민 (고통에 몸부림치다 얼어붙는다) ...

구박사 쫄 거 봐. 지리겠द्या~ 그리고 걱정마. 검정 봉투 는 계속 될테니까.

검정 봉투 로 얼굴 가렸는데 누군지 알게 뭐야? 아이템 죽여~~

지민이 뭐라 소리치지만 검정 봉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

번쩍이는 칼을 꺼내든 구박사, 지민 머리에 쏜 검정 봉투 입 부분을 도려낸다.

구박사 비명은 생생하게 찍혀야지. 말해봐. 뭐? 뭐?! ㅋㅋ..

지민 (이 악물고 버티며)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

구박사 뭐래니?? 미친 거 아냐? ㅋㅋ..

지민 (또박또박)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

순간, 어디선가 ‘개자식!!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자 목소리 울리고.

흠칫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구박사와 조수.

지민 최대 맥스로!! 씨발!! 씨발!! 씨발!!

여자 알겠습니다. 10초 뒤 씨발 설정을 시작합니다. 10,9,8....

구박사 ..뭐.. 뭐..야??

조수 씨발이래는데요??

구박사 몰라서 그래? 씨발 씨발 씨발이 뭐냐고??!!

여자리 3,2,1. GO!!

순간 몸을 바짝 웅크려 애기 자세를 취하는 지민.

동시에, 엄청난 저주파 소리와 함께 눈을 파고 들어오는 강력한 불빛이 방 전체를 뒤흔든다.

그 충격으로 눈을 감싸고 비명을 지르며 휘청되는 구박사와 조수.

그 틈에 묶인 손을 푸는 지민, 구박사와 조수를 밀치고 밖으로 튀어나간다.

미친 듯이 번쩍이며 울려되는 지민 원 룸!!

## 70. 후보 토론회장 - 오전

‘가짜 뉴스와 사이버 폭력’이라는 주제로 다른 후보 2명과 함께 방송 토론 중인 윤재국.

진행자 오늘 밤을 새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짜 뉴스와 사이버 폭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윤재국 후보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재국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가짜 뉴스와 사이버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윤재국이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는 윤재국,

카메라가 꺼지자, 진행자가 일어나 후보1,2와 형식적인 인사한 뒤, 윤재국에게 정성을 다해 고개 숙인다.

담담하게 다른 후보들과 악수를 하며 스튜디오를 나가는 윤재국.

## 71. 경찰서 회의실 - 오전

긴장한 경찰 간부와 형사들이 비어 있는 자리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서장이 들어오자 다들 일어나고, 열받은 얼굴로 자리에 앉는 서장.

서장 지시에 회의실 대형화면에 검정 봉투 유튜브가 뜬다.

이번 후보 3명이 옆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서장      현직 의원이 후보야. 그것도 VIP 최측근!! 내가 얼마나 깨졌는지 알겠지?

형사들    (얼굴이 굳는다) ..

서장      무조건 찾아내. **이번에 자기를 쓰레기 후보에 올렸다면?**

검정봉지인가 검은봉투인가 하는 미친 새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수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찾아내면.. 그 뒤는요? 책임져 주니까?

서장      (아.. 또 저 새끼네..) 생활 안전계가 왜 여기 있어?

(얼굴 찌푸리며) 괜히 물 흐리지 말고 안전계 일이나 잘 해.

열받은 서장이 나가자 우르르 일어나는 형사들.

검정 봉투    자료를 들고 광수대 팀장에게 가는 수현.

바쁜지 폰으로 전화하던 광수팀장, 수현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다.

혼자 남은 수현, 대형 화면에 뜬 검정 봉투 를 보다, 검정 봉투 자료를 휴지통에 넣고 나간다.

## 72. 경찰서 앞 - 오후

광수대 차들이 연이어 경찰서를 빠져나간다.

너덜너덜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오는 수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

힘 빠진 채 걸어가던 수현, 골목길로 들어가고, 뒤따르던 누군가도 따라 들어가는데,

순간, 발길질이 날아들고, 쓰러지는 누군가를 덮치고 수현, ‘헐~’ 놀란다!!

## 73. 골목길 - 오후

얼굴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지민과 탄청 피우는 수현.

수현      너 아니다?

지민      나면? 찾아오겠어요?!

수현      그럼 누군데?



지민 알면 그 짱통 검정 봉투 새끼를 찾아갔겠죠!!  
수현 이 자식이...  
지민 나.. 아닌 거 알잖아요. 안 그래요?!  
수현 (쏘아보다 한 숨) 이번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 중에 VIP 최측근이 있어. 또 사고 터지면 경찰청장 모가지도 간당간당할 거야.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싫으면 죽은 듯이 가만 있어.  
지민 짱통 검정 봉투 는요?  
수현 누군가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  
지민 잡아야죠. 짱통 검정 봉투 !! 강력계 에이스였다면서요??  
수현 에이스는 지랄... 경찰 30년에 무릎. 허리, 당뇨에 고혈압.. 정상인데가 없어. 계획대로 유흥업소 단속이나 하며 정년퇴직 할거야.  
지민 못할 수도 있을텐데..  
수현 .. ??  
지민 형사들이 안 찾아온 거 보면 뻔하죠. 검정 봉투 정보 공유 안 했잖아요. 괜찮으려나?  
수현 (먹살 잡으며) 이 새끼가. 또 나타나 봐. 내 목을 걸고서라도 너부터 조진다.

지민을 두고 사라지는 수현.

지민 (걸어가는 수현을 보며) .. 짱통 검정 봉투 .. 잘하면 찾을 수도 있는데.  
수현 (걸어간다) ..  
지민 혹시 알아요? 범인 잡고 형사 말년에 꽃길 펼쳐질 지..

무시하고 가던 수현, 돌아서더니 지민을 보며 헛웃음 짓는데...

#### 74. 구로 디지털단지 빌딩 - 오후

최첨단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무선 헤드폰에 무테 안경을 쓴 종수(28).  
니트 가디건에 청바지, 슬립온 신발을 신고 크로스 백을 맨 채 퇴근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IT 회사원 복장인 종수.  
폰을 확인하며 걸어간다. 멈칫하더니 얼른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지민과 수현.

지민 꼴이 그게 뭐냐??

#### 75. 디지털단지 골목길 - 오후

겁먹은 종수가 가방을 뒤지는 지민과 수현을 힐긋거린다.  
지민, 종수 폰을 종수 얼굴에 갖다 되면, 아이폰 잠금이 해제된다.

종수 이거 범죄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현 신고해. (신분증 보여주며) 경찰이니까. 검정 봉투 로 엮어 줄게~  
지민 검정 봉투 폭파시켰거든.

종수      그래서요?!

지민      어떤 새끼가 다시 살렸어. 짹검 붕투 를!!

종수      나 아니라니깐!!

지민      쫄보 넌 못하지. 절대.

종수      그럼 왜?! 나랑 상관없다니까!!

지민      근데.. 세트니 뭐니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검정 붕투 소각 시스템은 너 말고는 못하지.

수현      이 진따가 그걸 만들었다고?

수현      생사람 잡지 마요..

지민      네가 그랬잖아. 그거 만들 때 에그 심어놔서 탄 놈들이 그대로 흉내 내다간 짜부된다고.

수현      그때 이후로 들어간 적도 없다니깐!!

폰을 이리저리 살피던 지민, 폰 가장 자리 4곳을 톡톡 두드리자,  
 종수 폰에 숨겨진 화면이 떠오르고, 검정 붕투 유튜브와 처음 본 앱!!

지민      오호.. 수상한 게 있네..

종수      .. 깔기만 하고 안 했다니깐요.. 진짜라니까!!

지민      (수현에게 눈빛으로 도움 요청한다) ..

수현      가자. 경찰서. 거기 가면 생각나는 게 있겠지.

얼굴이 울상이 되는 종수, 지민이 뺏은 폰을 다시 낚아채더니, 폰을 빠르게 조작한다.

종수      이전에 검정 붕투 소스 코드 주면 돈 준다는 연락 왔었거든요. .. 당연히 발신자 불명.

지민      ...

종수      (앱 터치하며) 그러다 얼마 뒤 이게 뜨더라구요. 이거 만든 새끼는 진짜 찐이거든요.  
 (눈빛이 이글) 이 정도면 구글 디렉터급도 가능할 걸요. 재미있어요~

곧, 간결한 로딩 화면에 이어 암호 처리된 숫자들이 빠르게 연동되고,  
 서서히 드러나는 이름. 'EVERYTHING'이다.

지민      에..브리핑?? 뭐야.. 이게??!!

종수가 '에브리핑' 아이템 중에서 한 곳을 열자,  
 검정 붕투 쓰레기 후보들이 떠 있고, 연동된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다.  
 지민과 수현의 눈이 점점 커진다.

## 76. 에브리핑 컨트롤실 - 저녁

대형 모니터와 수 많은 모니터에 숫자와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모니터별로 다양한 아이템들이 베팅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접속자가 많은 곳이 검정 붕투 다.  
 '좋아요' 수와 연동된 베팅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걸 지켜보는 은철과 컨트롤실 직원들.  
 후보 위치가 파란 색으로 표시되고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원 안에 붉은 점들이 몰려있다.

은철      미지근하네.. 휘발유 더 뿌려. 세상은 더 망겨져야 돼~

은철 지시에 후보자들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메시지가 업로드되고.  
딥 짝퉁와 가짜 뉴스로 제작된 것들이다.  
곧,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하는 여중생 후보 '좋아요' 수!!

## 77. 빌딩 뒤 - 저녁

눈이 커진 채 에브리씽을 살펴보는 지민과 수현.

종수      블록체인 베팅 에브리씽. 스포츠는 물론이고, 각종 선거, 날씨, 일별 사망자,  
             심지어 전쟁까지.. 세상 모든 걸 베팅할 수 있거든요.

지민      검정 봉투 랑 무슨 상관인데?

종수      에브리씽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검정 봉투 니까.

지민      뭐? 설마..??

종수      쓰레기 후보를 소각하는 방법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자동차 뺑소니, 추락사, 자살,  
             신체 절단, 시간까지.. 확률과 베팅에 따라 수익금이 정해져요.  
             텔레그램보다 안전하게요. 그러니 난리들이죠~

수현      경찰이 그냥 놔둘 것 같아?

종수      절대 못 잡아요.

수현      뭐?!

종수      에브리씽은 분산 컴퓨팅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버도 리전으로 운영돼 잡는 것은 고사하  
고  
             찾는 것도 몇 년 걸려요. 설령 한국 서버가 털린다 해도 해외 서버에서 곧바로 자동  
             생성되구요. 게다가 운영하는 새끼들이 진짜 썩이예요. 하드웨어에 돈 안 아끼거든요.  
             .. 연봉은 동종 업계의 열 배. 파격 인센티브까지. .. 에브리씽에서 제의 들어오면  
             안 갈 사람 없을 걸요~

수현      이해가 안 돼. 사람 죽이거나 망가트리는 걸로 돈을 건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종수      (빠죽) 죽어도 될 새끼들이잖아요.

지민      경찰한테 추적당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놔들 망가지는 모습을 즐긴다?

종수      빙고~~ 거기다 잭 팟 가능성까지!!

수현      (놀란다) ??!?

종수      어떤 놈들은 자기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생각해 봐요. 망가트리고 싶은 놈 목숨을 걸고 쪼는 맛이 어떨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한번 맛 들이면 미치죠~

지민      ㅋㅋ.. 검정 봉투 는 에브리씽 경주마였네.. 그래서 사람이 몰렸던 거고..  
             짝퉁 검정 봉투 .. 누가 만든 지 알겠어!!

그때 에브리씽 알람이 울리고, 검정 봉투 아이템에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다.  
여중생 주연이가 찍힌 실시간 동영상이다.

## 78. 아파트 지하 주차장 - 밤

‘파썩!!’ 어둠 속에서 시퍼런 전기 불꽃이 튜다!!

‘아악!!’ 비명과 함께 몸을 부르르 떨며 쓰러지는 경주와 잔뜩 얼은 채 어쩔 줄 몰라하는 은주.  
전기 충격기를 든 주연, 장난스럽게 경주와 은주를 찔러대고 있고,  
폰으로 동영상 찍으며 낄낄거리는 양아치들.

주연      짱이네~ 아빠가 술 처먹고 엄마한테 개지랄 떨 때 하던건데..

양1      .. 상처 안 생겨?

주연      (전기 충격기에 불꽃 일으키며) 아빠가 의사라 머리는 존나게 스마트하거든.

양2      그래도 담탱이한테 걸리면??

주연      진짜 새끼!! (은주를 보고 히죽) 대타 있잖아. 그지 은주야??

은주      (시선 피한다) ...

주연      (전기 충격기로 위협하며) 싫으면 경주랑 바꾸던가.

은주      아..아냐.. 아냐.. 내가 했다 할게.

양1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경주 저년이 뭘 잘못했는데?

양2      병신!! ... (주연을 보며) 뭐..였더라??

주연      (양아치1,2 쏘아보다 씨익) 나도 까먹었잖아~~ ㅋㅋ.. 경주아.. 넌 왜 쳐맞고 있니?

경주      (울먹이며) ..나야.. 잘.. 모르지.. 그냥 니가 불러서...

주연      (전기 충격기로 툭툭 지지며) 흥경주 씨뱅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 79. 에브리씽 컨트롤실

대형 모니터에 주연 무리들을 찍은 동영상이 보이고,

- ‘아악!! 아악!! 아악!!’ 전기 충격기 세례에 몸을 부르르 떠는 경주와 히죽거리며 웃는 주연.  
쓰레기 후보 중에서 주연에게 물리는 ‘좋아요’ 수!!

은철      (모니터 보며) 마무리하자. 자기장 줄여.

## 80. 자동차 - 밤

‘부웅!!’ 도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하는 수현, 지민과 종수는 폰으로 에브리씽을 확인 중이다.

파란색 주연 주위에 원이 점점 줄어들자, 먹이를 노리듯 빠르게 몰려드는 수많은 붉은 점들!!

지민      (줄어드는 원 안으로 몰려드는 붉은 점들을 가리키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종수      아.. 자기장요.. 이거 밖에 있으면 타켓 노릴 자격이 없어져요.

지민      배틀 로얄 방식이야?!

종수      오늘 무조건 결정 내겠다는 거죠.

지민      (수현을 보며) 지원 요청해요. 지금 당장!!

속도를 더 올리는 자동차!!

## 81. 외진 골목 - 밤

폰으로 인스타 확인하며 걸어가는 주연.

내일 가지고 놀 같은 반 친구 장난감을 고르며 사진을 넘기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인기척.

주연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주연      광수 오빠? 어제 봤는데.. 하여튼 존나 밝혀~ ㅋㅋ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한 뒤 돌아보는 주연.

그런데, 짙은 어둠뿐이다.

가웃하는 주연, 다시 폰을 보며 걷는데,

멀찍이서 뒤따라가는 누군가.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 82. 거리/골목길 - 밤

- 달리는 지민, 이리 저리 살피지만 주연이가 보이지 않는다.

- 폰을 보며 걸어가는 여중생, 달려가 여중생을 붙잡는 지민, 주연이가 아니다.

- 골목길을 달리던 지민, 저만치 폰을 보며 가는 주연을 발견하고, 달려가 주연 손을 잡는 지민.

주연      (지민 손을 뿌리치며) 깜짝이야. 씨발!!

지민      (주변을 둘러보며) 피해야 돼!!

주연      뭘데?! .. (그제야 알겠다는 듯) 아.. 그때 아줌마?!~

지민      널 노리는 놈들이 있어.

주연      당연하지. 이 몸이 얼마나 인기 짱인데~

지민      (폰으로 검정 봉투 보여주며) 이거 알아?

주연      뭘데.. 검정 봉투 인가 봉지인가 하는 거? 게 뭐??

지민      네가 쓰레기 후보야?

주연      좇까는 소리마요. 그거 다 조작 방송이라고 댔어. .. 그리고 지들이 노리면 어쩔 건데?

지민      어서 피해야 돼!!

주연      울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변호사라니까. 진짜 새끼들 다 고소 때리면 돼~

지민      (주연 손을 잡고) 알겠고!! 일단 피하자!!

주연      (지민에게 끌려가며) 미쳤나 봐. 왜 이래 씨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모습을 드러내고, 보면 얼굴에 검정 봉투 를 썼다.

주연      뭐야? 일행이야?? 씨발.. 이거.. 몰카지?!?! 겁 주려고.. 애쓴다..ㅋㅋ~

검정 봉투      (주연과 지민을 노려본다)

주연      꼬라지가 그게 뭐야?? 구리게~~ ㅋㅋ.. (그러다 멈칫한다)

보면, 검정 봉투 뒤에 또 다른 검정 봉투 들이 나타나고, 손에 시퍼른 게 어둠 속에서 번뜩인다.

‘빠지직!!’ 시퍼런 불꽃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검정 봉투 들!!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던 지민과 주연, 검정 봉투 들이 가까워지자, 주연이가 지민을 확 밀친다.  
그 바람에 길바닥에 나뒹구는 지민.

주연      씨발!! 너 때문이잖아!!

주연, 쓰러진 지민을 힐끗 보더니 반대편으로 달아난다.  
쓰러진 지민, 일어나는데, 검정 봉투 들이 달려와 발길질을 내갈긴다.  
‘퍽! 퍽!! 퍽!!!’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뒹구는 지민.

그런 지민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몸집 작은 검정 봉투.  
지민과 눈이 마주치자 장난스럽게 손을 흔드는데, 놈은 분명 웃고 있다.  
‘빠지직!!’ 시퍼런 불꽃을 지민 얼굴에 갖다 대는 다른 검정 봉투 들.  
‘동작 그만!!!’  
보면,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수현!!  
멈칫하는 검정 봉투 들, 주연이가 달아난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쓰러진 지민에게 달려오는 수현, 지민, 이 악물고 일어난다.

### 83. 외진 골목길 - 밤

폰으로 전화 걸며 미친 듯 달리는 주연.

주연      내 전화를 씹어?? .. 내일 보기만 해봐. 다 뒤졌어!!

다시 폰으로 전화 거는 전화. 그런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지 머뭇거리고.

주연      아.. 씨발.. 뭐였더라??!! 아빠.. 엄마.. 번호 괜히 지웠나..

그러다 폰으로 112를 누르는 주연, 통화가 가고,

(소리)    112입니다!!

주연      도와주세요!!

(소리)    어떤 상황인가요?

주연      쫓기고 있어요.

(소리)    누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주연      씨발.. 알면 전화하겠어?! 얼굴에 검정 봉투 를 쓴 미친놈들이 전기 충격기를....

순간, ‘쿵!!’ 하고 나가떨어지는 주연.

‘끼익!!’ 검은 오토바이가 주연을 치고 저만치 멈춘다.

전기 충격기를 꺼낸 뒤 길바닥에 쓰러진 주연에게 다가가는 검은 헬멧.

흐느적거리는 주연,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검정 봉투 들, 손에 든 전기 충격기에서 시퍼런 불꽃들이 번득이고.

극한의 공포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벌벌 떠는 주연.

몸집 작은 검정 봉투 , 겁먹은 주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 84. 외진 골목길 - 밤

주연을 찾는 지민과 수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달리는데,  
저만치 누군가 길바닥에 주저 앉아있다.  
달려 가보면, 주연이다.  
다가가는 지민과 수현, 멈칫하고,  
보면, 온몸에 연기가 피워오르는 주연, 눈이 희멀겁게 뒤집혀있다.

#### 85. 고시방 - 새벽

“빠찌찍찍찍!!!!!!” 시퍼런 스파크들이 번득이고,  
‘으아아악!!!’ 비명을 내지르며 요동치는 주연.  
몸이 비틀어지며 요동치고, 하얀 연기가 피워 오를 때까지 전기충격기로 지지는 검정 봉투 들!  
몸집 작은 검정 봉투 도 틈에 끼여 전기 충격기로 주연을 지진다.

에브리씽 검정 봉투 에 올라간 새로운 동영상을 보며 흡족해하는 구박사와 조수.

구박사 카.. 앵글 죽여. 역광에 혈레이션 살아난 것 봐라. 미장센이 미쳤다야~~  
조수 댓글도 장난 아닌데요..  
구박사 (빠르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리얼한 게 진정성이 넘치잖아~

빠르게 올라가는 검정 봉투 댓글에 장난스럽게 글을 올리는 구박사,  
“검정 봉투 다음은.. 누구??!!”

#### 86. 검정 봉투 몽타쥬

- mim처럼 빠르게 번져가는 기괴하고 장난 끼 가득한 검정 봉투 사진과 영상들.
- 차별과 평등, 혐오와 정의로 가공된 가짜 뉴스들이 바이러스처럼 진화되어 빠르게 퍼져나간다.
- 유튜브 검정 봉투 에 자신들이 원하는 쓰레기 후보들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댓글들.  
다음 쓰레기 후보가 누군지 초미의 관심이다.
- 에브리씽 검정 봉투 에는 차기 쓰레기 후보에 대한 베팅이 시작되고.
- 어둠이 내려앉은 어두운 거리에 검정 봉투 를 쓴 놈들이 하나 둘 어슬렁거리고, 그 수가 늘어난다.

#### 87. 윤재국 선거 사무실 - 새벽

유튜브 검정 봉투 를 얼굴이 굳은 채 바라보는 윤재국.  
이전에 소각당한 쓰레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윤재국 눈빛이 번득인다.

## 88. 에브리씽 컨트롤실 - 오전

에브리씽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다.

대형 모니터로 에브리씽 아이템과 베팅 매출액을 보고 있는 은철.

그때 은철 폰에 메시지가 뜬다.

‘에브리씽 개발자 위치 확인!!’

대형 모니터를 보던 은철 얼굴에 섬뜩한 한 미소가 감돈다.

## 89. 게임 회사 빌딩 앞 - 오후

열 받은 종수가 씩씩거리며 나오고, 뒤따라 나오는 지민.

종수 진짜 마지막입니다!! .. 뭔데요??

지민 에브리씽 말이야. 면접 테스트 봤다며? 코드 봤을 거 아냐.

종수 그게 뭐가요?

지민 코드 덕후가 가만히 못 있지. 유일한 취미잖아. .. 코드필리아(codephilia)

종수 코드필리아는 무슨!! 그딴 거 보고 쏘리는 게 말이 되요? 안 느낀다니까!!

지민 (물끄러미 바라보며)

종수 변태도 아니고.. 진짜라니까!!

지민 (나가며) 그럼 어쩔 수 없지. 경찰서 가서 자수해야지. 검정 봉투 에 대해서..

소각 시스템 만들어준 너도 얘기 하고.

종수 아.. 개진상.. .. 약속해요. 앞으로 다신 얼굴 안 보는 겁니다!!

지민 (빙긔) 약속~~

종수 아우 진짜... .. 에브리씽은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거든요.

지민 그래서..

종수 근데 이상한 게, 다들 빠르고 가벼운 4세대로 갈 때..

애네만 비트코인처럼 1 세대도 켜더라구요.

지민 좀 쉽게 얘기해봐.

종수 졸라 빠르고 확장성도 갑인데.. 또 말도 안 되게 엄청 뚫기 힘들다는 거죠.

고인물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지민 1세대 개발자? 그래도 한 두명이 아닐텐데..

종수 문제는 하드웨어죠. IBM SYSTEM 390. 골동품이라 취급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아직도 파는 지 모르겠지만..,

## 90. 세운 상가 도로 - 오후

영거주춤 오토바이를 탄 채 폰을 보고 있는 지민.

오토바이가 불편한 지 자주 뒤통거리고, 그때 폰이 울린다.



지민 주소는요?

(소리) 이번에도 배송 도중에 장소 찍어 준답니다. 기사가 지랄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을 더 주니 하는 거죠. .. 약속 지키세요. 우린 검정 봉투 인가 뭔가랑 관계없는 겁니다.

그때 전자 제품 상가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나오는 택배 기사, 오토바이에 타더니 출발한다.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지민.

### 91. 을지로 상가 앞 - 저녁

폐업한 상가들로 가득 찬 거리.

택배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더니 문 닫힌 상가 앞에 택배 상자를 놓고 간다. 다시 한적해지는 상가 거리.

-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보는 긴장한 지민,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 92. 을지로 상가 안 - 저녁

문을 따고 들어오는 지민, 상가 안은 불이 꺼져있어 어둡하다.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오래전에 폐업한 분위기다.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지만 박보현 흔적을 찾지 못하는 지민.

.. 아닌가?? ..

그때 ‘바스락..’소리 들리고, 폰으로 라이트를 비추는 지민!!

보면, 어둠 속에 누군가가 후다닥 사라진다.

뒤쫓아 가는 지민, 그때 쌓여있던 상자들이 쏟아지고, 가까스로 몸을 굴러 피하고, 황급히 소리 나는 곳을 달려가면, 뒷문이 열려 있다.

### 93. 을지로 상가 골목 - 저녁

달려가는 지민, 막다른 길이다. 놈을 잡을 수 있다!!

그때 ‘아악!!’ 비명 소리 들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면,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 지민 다가가는데, 눈이 확 커진다.

새봄 (다리를 만지다 손짓하며) 저쪽요!!

지민 (박보현을 쫓다 멈추며) 괜찮아?!

새봄 후드 쓴 아저씨가 갑자기 밀치고 갔어요.

지민 ..넌 어떻게?!

새봄 과학 시간 준비물요. 애들 꺼 사러 왔는데 여기 오면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또 당했네요~ .. 언니는요?

지민 ..

새봄 금방 도망친 아저씨?

지민 (새봄 손잡아 일으키며) 나가자.  
새봄 (놀라 눈이 커지며) ..언니..

멈칫하는 지민, 몸을 휙 돌리면, ‘쿵!!’ 뒤로 나가 떨어진다.  
보면, 살벌한 덩치들과 은철이가 서 있다.  
쓰러진 지민을 살피는 새봄.

은철 (미소) 네년 때문에 놓쳤어. 어떻게 책임질래?  
덩치1 분명 안에 있는 거 확인 했는데.. 그래도 저년들 족치면 뭐라도 나오..

‘퍽!!’ 머리에 드라이버가 뚫린 채 피 흘리며 쓰러지는 덩치1.

은철 책임진다고 했지.  
지민 (두려움에 뒤로 주춤) .. 니들 누구야?!  
은철 (피 묻은 드라이버로 입 다물라며 손짓) 질문은 나. 대답은 너.  
지민 (겁먹은 채 쏘아본다) !!  
은철 궁금한 게 있었거든~  
지민 (주춤주춤 물리나며) .. ??!!  
은철 에브리씽 개발자가 왜 검정 봉투 에 관심 가졌을까? ..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수백, 수천억을 그냥 벌 수 있는데.. 왜 시간 낭비하냐는 거지. 그 미친 새끼는!!  
지민 (은철의 살기에 움찔) ..  
은서 흑시.. 아는 게 있나 해서.. 뭐.. 답 나오면 살려줄 수도 있고.  
지민 ..쫓까!!  
은철 하긴 개발자 그 새끼잡으면 알겠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지민 짝퉁 검정 봉투 가 네 짓이야?  
은철 ㅋㅋ... 허접한 정의감에 잘난 척은 다하고, 광고비 몇 푼 쥐어주면 없는 것도 만들어주는 그딴 걸? 내가 왜?? .. 에브리씽 개발자 그 미친 새끼 짓이겠지.  
지민 (놀란다) !!  
은철 잘게 썰어서 하수구에 뿌려. 흔적 남기지 말고. 짹새 꼬이면 귀찮아지니까.

은철 지시에 덩치들이 지민에게 다가간다.  
당황한 얼굴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지민.  
그때 ‘따르릉!! 따르릉!!’ 어디선가 울려대는 구식 전화벨 소리!!  
멈칫하는 은철과 덩치들, 지민도 주위를 둘러보는데,  
곧, 자동 응답 메시지가 들려온다.

“10초 뒤.. 씨발 설정을 시작합니다. 10,9,8...”

‘뭐야?’ ‘씨발 설정??!!’ 덩치들 자동 음성 메시지에 황당해하고,  
5,4,3.. 숫자가 줄어들자, 얼른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는 지민.  
황당해하는 덩치들, 하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은철.  
순간, ‘펑!!’하며 상가 안을 뒤덮는 총천연색 가루!!  
짙은 총천연색 연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콜록 거리는 기침 소리 들리고, 가루로 뒤덮인 채 소매로 숨을 참고 있는 은철,

주위를 둘러보다 웃는데, 지민이 사라졌다.

#### 94. 을지로 상가 빌딩 - 밤

좁은 복도를 달리는 지민.

뒤로 동은철 부하들이 몰려온다.

도망치던 지민, 당황하는데..., 막다른 골목이다.

덩치1 (비웃으며) 더 도망 가 봐~

덩치2 (지민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지옥 구경을 시켜 줄게~

끌려가는 지민, 덩치2 턱을 발로 날리고, 도망치는데...,

지민 몸을 낚아채더니 벽에 밀어버리는 덩치1.

‘아악!’ 비명을 토해내는 지민.

덩치2 (칼을 꺼내며) 여기서 회 쳐 줄게.

연장을 들고 다가오는 덩치에게서 벗어나려던 지민,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바닥났다.

두려움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민.

(소리) 잠시만요~

멈칫하는 덩치와 놀란 지민,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면,

백팩을 멘 새봄이가 웃고 있다.

덩치2 뭐냐?

새봄 아는 언니거든요~

덩치1 뒤지기 싫으면 가라.

새봄 (들고 있던 곰인형을 땅에 내려 놓으며) 싫은데요~

뒤뚱 뒤뚱 연장 든 덩치 앞으로 다가가는 곰돌이 인형.

기가 찬 듯 헛웃음 짓는 덩치, 가까이 온 곰돌이 인형을 발로 차버리는데...,

순간 ‘빠쩍!!’ 시퍼런 스파크와 함께 고전압이 흐르고, 감전되어 몸을 부르르 떠는 덩치들.

놀라는 지민, 새봄이가 지민 손을 잡아 끈다.

#### 95. 골목길 - 밤

-미친 듯 달리는 새봄과 지민, 쌓여있는 박스들이 보이자 서로 눈이 마주치고,

-연장 들고 지민과 새봄을 찾아 헤매는 덩치들이 지나간다.

곧, 박스가 움직이고, 모습을 드러내는 지민과 새봄.

(소리) 오늘 짱 잼있어요~

## 96. 거리

흥분한 새봄을 차가운 얼굴로 몰아세우는 지민.

지민      거긴 어떻게 온 거야?!

새봄      과학 시간 준비물요.

지민      위험했어!!

새봄      언니가 더 위험해 보인던데요~ .. 무슨 일인데요?

지민      그럴 일 있어.

새봄      저도 도울 게요. 그런 거 잘해요~

지민      안 돼.

새봄      언니..

지민      이게 애들 장난 같아 보여? 절대 안돼!!

화내는 지민을 보며 당황해하는 새봄.

지민      사람 목숨.. 눈 하나 깜짝 않고 없앨 놈들이야!!

새봄      (떨어지게 바라본다) ..

지민      또 이런 일에 휩싸이면 다신 끼어들지 마. 못 본 체 하고 그냥 지나쳐. 명심해!!

한 숨을 내쉬더니 고개 끄덕이는 새봄.

돌아선 지민 얼굴에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 97. 동네 마트 - 밤

카트를 끌며 생필품을 사고 있는 수현.

과일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세세하게 살피는데..

마지막 특가 세일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카트를 끌고 달려간다.

사람들을 헤치며 기어코 특가 상품을 손에 쥐는 수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로 향하다 멈칫!!

엉망진창 지민이가 수현을 찾아 왔다.

(소리) 에브리씽 개발자!! 그 새끼가 맞다니까요!!

## 98. 동네 마트 주차장 - 밤

카트를 끌고 자동차로 향하는 수현과 뒤따르며 얘기하는 지민.

지민      분명 짱통 검정 봉투 란 연관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놈들이라고요.

수현은 주차된 자동차에 트렁크를 열더니 특가 상품을 헉헉 던지고, 문을 열고 자동차에 올라탄다.  
그 문을 꼭 잡는 지민.

지민 그 살벌한 두목 새끼가 그랬거든요. ‘에브리씽 개발자가 왜 검정 봉투 에 관심 가졌을까?’

수현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민 에브리씽 개발자.. 검정 봉투 쓰레기들과 뭔가 있는 게 확실해요!!

수현 (지민 손을 뿌리치고 자동차에 올라탄다)

지민 그 새끼들이 절 죽이려고 했다고요. 잘게 썰어서 하수구에 뿌린다고!!

수현 .. 너도 그랬잖아. .. 검정 봉투 에서..

지민 (멈칫한다) !!

수현 장난 반.. 진심 반이라 하겠지만..

지민 그놈들은.. 쓰레기였어요.

수현 (냉소) 그럼 넌?

지민 ???!!

수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검정 봉투 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

세상 쉽게 바뀌지 않아. .. 네가 원한다고 꼭 바뀌어야 될 것도 아니고.

지민 ..그래도..

수현 정직 먹었어. 여중생 사고로. .. 한 번 더 사고 치면 퇴직금이고 뭐고 다 날라가.

.. 넌.. 뭘 걸 수 있는데? 검정 봉투 벗고 말아야.

선뜻 말 못하는 지민.

수현, 자동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떠난다.

## 99. 에브리씽 컨트롤실 - 밤

굳은 얼굴로 에브리씽 컨트롤실로 들어오는 은철.

여러 모니터들이 멈춰서 있고 당황한 직원들이 해결하느라 정신없다.

팀장 .. 갑자기 시스템이 엉기고 있습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은철 시간은?

팀장 3분 지나면 멈출 겁니다. 전부요..

은철 다른 방법 없어??

팀장 재부팅이 남았는데.., 복구될 가능성도 낮고, 거래가 끊겨 난리날 겁니다.

공지 올릴까요?

은철 신용 한 번 잃으면 끝이야.

갈등하는 은철, 그때 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날아든다.

*“또 날 찾으면, 에브리씽은 닳쟁이 될 거야.”*

판돈은 다 사라질테고.  
동은철. 넌.. 어떻게 될까?”

무표정한 은철, 메시지에 답장을 보낸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벌칙이 있어.”

“무엇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자를 쓰레기로 만들어.”

은철 폰으로 전송되는 사진.

의외의 인물인 듯 멍뚱하는 은철, 얼굴이 찡그러지더니 잔인한 미소가 흐른다.

## 100. E-WASTE 사무실 - 밤

불이 꺼진 E-WASTE 사무실.

어두운 사무실 창으로 불빛이 일렁거리고.

라이트로 뭔가를 뒤지고 있는 검은 실루엣, 지민이다!!

경리 예은 책상의 서랍을 열더니 밖으로 끄집어내고,

테이블 서랍 뒤쪽을 살피는 지민, 테이프에 붙여 꼼꼼하게 보관한 비닐봉투가 나온다.

열어 보면, E-WASTE 폐기물에서 캐냈던 쓰레기 자료들이다.

## 101. E-WASTE - 밤

숨겨둔 비닐 봉투를 들고 E-WASTE를 나가는 지민.

폐기물 집하장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나가다 발걸음을 멈추는 지민, 한숨을 내쉰다.

## 102. E-WASTE 폐기물장 - 밤

폐기물 더미 위에 앉아있는 새봄.

지민      찾았어?

새봄      (미소) 이제 없어도 괜찮아요~

지민      ??!?

새봄      언니 덕분이예요~

지민      ..나 때문에??

새봄      폰에 든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방긋 웃는 새봄과 물끄러미 바라보는 지민.

지민 어쨌든 다행이다. .. (위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좋은 세상 올 거야~  
 새봄 하하하.. 아무래도 좋은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언니처럼요~  
 새봄 (움찔.. 그러다 웃는다) ㅋㅋ.. 좋은 사람 안 한다니까~ 호구되기 싫으니까..  
 새봄 (백팩에서 뭔가를 꺼내며) 이거요..  
 지민 (어색하게 받으며) 난 줄 게 없는데..  
 새봄 기회를 줬잖아요.  
 지민 .. 기회..??  
 새봄 혹시 알아요. 담에 만나면 줄 게 있을지~~

웃는 새봄을 말없이 바라보는 지민,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는다.

새봄 (폰 꺼내며) 사진.. 괜찮죠?  
 지민 찍히는 거 안 좋아 하는데.., 오늘만큼은 예외다. .. 근데 꼴이 영 말이 아니네..  
 새봄 걱정마세요. 인생 샷이 될 테니까요~  
 지민 약속 지켜~

‘찰칵! 찰칵!! 찰칵!!!’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는 새봄과 어색해하지만 환하게 웃는 지민.  
 화면 하얗게 밝아진다.

### 103. 검색 몽타쥬

하얀 화면이 분할되더니 다중 화면으로 보여진다.

- 검정 봉투 에 업로드했던 쓰레기 사진들을 벽에 붙이는 지민.
- 몇몇 사진들을 떼어 내고, 붙이고를 반복한다.
- 검정 봉투 에 올라온 최종 쓰레기 중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사진이 붙어 있다.
- 솔론 대표 신권하. BJ 김시연. 리딩방 정우진. 일진 여중 오주연  
 마지막으로 3개월 전 뽕소니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목사 장강훈(53).
- 그 가운데에 ‘작통 검정 봉투’와 ‘블록체인 베틱 에브리씽’ 사진이 있다.

컴퓨터로 연관성을 검색해 보는 지민

지민 (모니터 보며) ..뭘 놓쳤을까?..

연관된 글이 보이지 않자 한 숨을 내쉬던 지민, 컴퓨터를 끄려다, 벽에 김시연 사진을 보고.  
 김시연 사진을 AI 이미지 검색으로 찾는데, 프롬프트는 성형 전 사진!!  
 검색이 시작되고 잠시 뒤. 7년 전 블로그에 올라온 스타트업 MT 단체 사진이다.

지민 스타트업 업이라..

사진 속 스타트업 업을 검색하는 지민, 관련된 창들이 뜨고,  
 김시연 본명은 엄지오. 7년 전 블록체인 회사 계약직이다.  
 그 회사 마케팅 이사가 솔론 대표 신권하!!

눈빛이 빛나는 지민, 더 검색을 하는데..., 멈칫한다.

그 회사 대표가 성폭행 사건으로 부도났고,  
그 대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던 초기 개발자 박보현이다.

지민      찾았다!! .. 뭐야? 복역 중이라고?!

박보현은 성폭행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라는 기사.  
이번에 박보현을 검색하는 지민.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박보현 기사와 비난하는 댓글들이 주룩룩 뜨고,  
최근까지 박보현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박보현을 가운데 놓고 신권하, 김시연 사진을 옆에 붙이는 지민.  
박보현을 더 검색하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 된 정보가 없다.

벽에 붙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지민, 나가고,  
‘ 째퐁 검정 봉투 ’와 ‘에브리씽’ 옆에 ‘박보현’ 사진이 붙어 있다.

#### 104. 도심 언덕길 - 밤

쇼핑백을 들고 킁킁대며 언덕길을 올라가는 수현.  
폰이 울리고, 확인하면, 지민 메시지다.

수현      (메시지 무시하고 폰 넣으며) 이놈의 언덕배기는..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에이..

쇼핑백 든 수현,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한숨을 내쉬고, 결국 지민 메시지를 확인한다.

#### 105. 지민 원룸 근처/언덕길 - 밤

불 꺼진 지민 집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그때 폰이 울리자, 놀라 얼른 전화를 받고, 어둠 속 지민이다.

수현      이거 걸리면 감옥 가.  
지민      전.. 죽게 생겼어요.  
수현      자업자득이지. .. 보내준 거 알아봤거든.  
지민      뭐래요?  
수현      네가 맞아. .. 박보현은 성폭행 혐의로 5년 형 받고 복역 중이야.  
지민      (실망) 아.. 복역중이라면 아닌가..  
수현      반전이 있지.  
지민      뭘..데요??!!  
수현      복역 중에 암 선고를 받았어. 체장암으로..  
지민      지금 어딴데요?!  
수현      1년 전에 출소했는데,..., 이후로 흔적이 없어.



지민 병원 기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현 치료 포기 했나봐. .. 췌장암 4기라.. 1년 절대 못 넘기거든.  
지민 치료까지 포기하고 복수 하고 있다.. 짝퉁 검정 봉투와 에브리씽을 이용해서?  
수현 솔론이랑 김시연은 그렇다쳐도, 여중생, 사기 리딩방, 목사는 왜?  
지민 어떤 식이든 박보현과 관련 있을 거예요. .. 에브리씽은요?  
수현 온라인 불법 도박의 쿠팡이야. 운영하는 놈은 동은철이라고 원래 사회 운동하던 놈인데  
빚을 졌고 사채조직에 흘러 들어갔나봐. SKY 출신에 하는 짓도 미친놈이라 온라인  
도박조직 하나를 꺾었다가.., 박보현을 만나 에브리씽을 만들었겠지.  
동은철은 에브리씽으로 기존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들을 다 먹었고.  
박보현은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겠지.  
지민 마지막 복수?? 누군데요.. 그게?  
수현 박보현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 106. 윤재국 선거 사무실 - 아침

사무실이 사람들로 혼잡하다.

방송국 사람들과 보좌진들이 윤재국 인터뷰를 준비 중이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지민, 윤재국이 있는 곳을 찾고, 다가오는 보좌1, 지민 긴장한다.

보좌1 (문서 주며) 오늘 대본요. 저녁 뉴스 맞죠?  
지민 (문서 받으며 고개 끄덕) ..  
보좌1 후보님께서 수정할 게 있다 하셨는데..., 시간 오바되면 큰일나요.  
1시간 뒤에 종로 유세가 있거든요. (한 쪽을 가리키며) 후보님 있는 곳 아시죠?  
지민 당연하죠~

#### 107. 윤재국 방 - 아침

대본을 든 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민.

방 안에는 책과 서류들이 산적해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진심이 느껴지는 사무실이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하얀 와이셔츠 정장 차림의 윤재국.

어정쩡하게 서 있는 지민을 보자, 서늘한 미소가 흐른다.

윤재국 초대받지 않은 손님?  
지민 아마도요.  
윤재국 .. 앉으세요. 처음 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지민 (망설인다) ..  
윤재국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 올 테니까.  
지민 (작정했다) 그럼 단독 직입적으로 물을게요. .. 박보현 아시죠?!

당황할 줄 알았지만, 담담히 웃으며 고개 끄덕이는 윤재국.

윤재국 알죠. 잘 압니다.  
 지민 출소한 것도..  
 윤재국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지민 그럼.. 박보현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겠네요?  
 윤재국 (미소) 저.. 아닐까요? .. (지민을 물끄러미 보며) 검정 봉투 겠군요. 바뀌기 전이겠지만..  
 지민 (놀란다) !!  
 윤재국 역시.. 이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지민 박보현이.. 후보님을 노릴 겁니다.  
 윤재국 (씁쓸하게 웃는다) 당연하겠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까.

재국의 고백에 당황하는 지민.

윤재국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거짓말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금도 박보현이 성폭행 안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50년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지민 그럼 왜...??  
 윤재국 더러운 모함을 당한 거죠. 죽은 솔론 신대표가 블록체인 기술과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회사 여직원과 벌린 일입니다.  
 지민 ..김시연?!  
 윤재국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우진을 이용해 거짓 뉴스를 만들었고, 악성 댓글까지 조직적으로 올려 박보현을 잠식해 갔으니까요.  
 지민 그런데.. 왜 변호를 중간에 그만두었나요??  
 윤재국 (창문으로 향한다) ..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요. 솔론 신대표와 싸우다가 놈과 다했죠. 진실을 조작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죠. 아무리 말려도, 그만두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소용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친구 박보현 변호를 중간에 그만둔 일입니다. 놈들과 싸우다 결국 청부 살인까지 했으니까요?  
 지민 청부 살인요?!

자책하는 윤재국의 고백에 당황하는 지민.

그때 ‘똑! 똑!!’ 노크 소리 들리고, 보좌1과 함께 들어오는 상진, 지민을 보고. 놀란다.  
 보좌1, 이상한 낯새를 채고 경호를 부르는데,

윤재국 (지민과 악수하며) 다음에 꼭 출연하죠~ 연락 하겠습니다~  
 지민 (영접결에 악수하며) 네..  
 윤재국 그럼.. 계속 수고해줘요~

윤재국과 인사하고 상진을 보며 나가는 지민.

## 108. 윤재국 사무실 밖 - 아침

급히 사무실을 나오는 지민, 상진이 뒤따라 나온다.

상진      자주 만나네~ 우연치곤 너무 자주이지 않아?  
 지민      (대꾸없이 걸어간다) ..  
 상진      널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지민      (계속 걸어간다) ..  
 상진      .. 검정 봉투 .. 너 맞지?

발걸음을 멈추는 지민, 뒤돌아 상진을 본다.

지민      (뚫어지게 보며) 박보현을 알아봐.  
 상진      ..박.. 보현?? .. 5년 전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블록체인 개발자? 그 사람 왜??!!  
 지민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려고 할테니까.

지민 말에 놀라는 상진.  
 그때 사무실 쪽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당황한 스텝이 다가와 상진에게 귓속말을 뭔가를 전해준다.  
 상진, 놀라더니 지민과 눈이 맞추치는데, 지민 폰에 울리는 에브리씽 알람 소리!!  
 짹검정 봉투 에 새로운 쓰레기 후보가 떴다!!  
 ‘빠앙!’ 클랙션 소리 들리고, 자동차에 탄 윤재국, 지민과 상진에게 타라며 손짓한다.

### 109. 윤재국 자동차 - 오전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앞뒤로 경호 차량이 뒤따른다.  
 뒷좌석에 윤재국과 지민, 조수석에 상진이 앉아 있다.  
 폰으로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보는 윤재국.

1. 자극적인 유튜브로 고수익을 올리는 전직 의원 출신 변호사.
2. 상습적인 성추행과 재산 헌납 강요로 부정 축재한 목사.
3. 무고로 재판 중이던 50년 친구를 배신하고 변호까지 그만뒀던 시장 후보

자신에게 ‘좋아요’가 폭증하는 걸 보며 웃는 윤재국.  
 올라온 제보들 대부분이 조작된 증거와 사진, 페이크 동영상들이다.

윤재국      (폰 담으며) 세상 일 참 몰라~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진짜 안 좋아했거든.  
                  그런데 검사가 되고, 변호사를 했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고 있고.. (지민을 보며) 자넨 어떨까?  
 지민      식당 하시던 부모님이 문을 닫으셨죠. 공짜 밥 먹으려던 유튜버를 내쫓으셨거든요.  
                  계속된 악성 댓글과 민원 제기로 빚만 잔뜩 안은 채 두 손을 드셨죠. 그래서 경찰이  
                  됐어요. 적성에 잘 맞아 좋아했는데..., 진상 민원 처리해주다 결국 폭발해버렸죠.  
                  그 덕분에 옷 벗었고 디지털 폐기물 센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윤재국      .. 경찰과 폐기물 처리라..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지민      경찰은.. 포기했어요.  
 윤재국      ??

지민 눈앞에 보이는 걸.., 계속 무시하고 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윤재국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나?  
검정 봉투 오랜 팬이야~ 물론 바뀌기 전에 말이야~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상진, 폰을 확인하더니 돌아본다.

상진 아무래도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국 에브리씽 검정 봉투 에 ‘좋아요’가 폭주하나보군~  
상진 후보님!!  
지민 박보현이 직접 노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윤재국 그 친구 보면 해줄 말이 있거든.  
지민/상진 (놀란다) !!  
윤재국 더 늦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

빙그레 웃는 윤재국, 얼굴에 비장함이 서려 있다.  
지민과 상진 얼굴에 긴장감이 흐른다.

#### 110. 종로 연설 연단 뒤 - 오전

경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긴장된 얼굴의 보좌1이 들어온다.

보좌1 경찰 1개 중대를 보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내려 오셔야 합니다.  
상진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보며) 너무 위험해요.  
일정을 미루셔야 됩니다. 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윤재국 자넨.. 비관적이야~  
지민 후보님은 너무 낙관적이신데요.  
윤재국 그래서 우리 비서관들이 고생이 많아~ .. 약속은 지켜야 돼.

걱정 가득한 보좌1 어깨를 두드리며 연단으로 올라가는 윤재국.  
윤재국을 보는 지민과 상진, 걱정스럽기만 하다.

#### 111. 종로 연설 연단 - 오전

연단으로 올라 가는 윤재국.  
카메라 플래쉬 터지고, 사람들 환호가 터져 나온다.  
단상 앞으로 가는 윤재국.

-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확인하고 있는 지민과 상진.  
연단에 올라간 윤재국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악성 댓글들이 빠르게 달린다.

윤재국 먼저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 이전 일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세를 연기하라 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내려앉는 연설장, 경호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카메라 플래쉬가 연달아 터진다.

윤재국 살아오면서 진실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검정 봉투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쓰레기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변호사로서 부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피의자.. 아니 제 친구의 변호를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실 앞에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렁이는 연설장, 주변 경호원들과 보좌들이 주위를 살피며 긴장한다.

-검정 봉투 를 보던 지민과 상진의 눈이 커지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윤재국 동영상에 “죽여!!” “목을 따버려!!” 각종 악성 댓글들이 폭주한다.

윤재국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켠에 그날의 부끄러움이 큰 빛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의 비겁함과 용기 없음에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합니다.  
앞으로... 제가 선 자리에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윤재국이 되겠습니다.

연단 앞으로 나오는 윤재국, 고개를 깊이 숙인다.  
조용해진 연설회장, 박수 소리와 함께 사람들 환호가 터져나오고, 카메라 플래쉬가 설새 없이 터진다.  
그때 “또 구라치지마!!” “변절자!!” 욕설과 야유가 곳곳에서 타져나오고.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확인하는 지민과 상진, 모여든 사람들을 살피는데...  
그때 누군가 연단 쪽으로 다가서기 시작하고, 머리에 검정 봉투 를 썼다!!  
동시에 반대편 쪽에서 검정 봉투 를 쓴 누군가가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간다.

함성 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망치를 들고 단상 위 윤재국에게 달려드는 검정 봉투 !!  
달려든 검정 봉투 를 쓰러트리는 경호1,2. 보좌1, 윤재국을 보호하는데...

그때 ‘와아악!!’ 비명과 환호를 내지르며 윤재국에게 달려드는 칼을 든 또 다른 검정 봉투 .  
순간 그 검정 봉투 를 강타하는 발차기, 지민이다.

지민 나가요!!

지민과 함께 연설장을 빠져나가는 윤재국.  
하지만 검정 봉투 들이 연단 위로 몰려들고,  
경찰과 경호, 보좌들이 좀비처럼 몰려드는 검정 봉투 들을 막느라 정신없다.  
보좌2가 검정 봉투 들에게 당하자, 나가려던 윤재국 망설이고.

지민 (윤재국 팔을 끌며) 더 늦으면 무슨 일 생길지 몰라요. 빨리!!

달려드는 검정 봉투 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지민, 검정 봉투 수는 더 불어나고,  
보좌1, 윤재국을 경호하며 연단을 빠져나가는데...  
순간 ‘찌잉!!’ 스피커 노이즈 울리고, ‘위잉!!’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날아드는 드론들!!  
연설회장을 미친 듯 맴돌기 시작하고,  
당황한 보좌1, 윤재국을 에워싸며 연단 밑으로 내려간다.

빠르게 선회하는 드론들, 일제히 멈추더니 빠져나가는 윤재국을 노리고,  
검정 봉투 를 막아서던 지민, 윤재국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위잉!!’ 윤재국을 향해 미친 듯 돌진하는 드론!!

## 112. 뉴스 몽타쥬

- ‘핑!!’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힌 연설회장이 모자이크되어 보도된다.
- 검정 봉투 를 쓰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경찰 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는다.
- 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는 검정 봉투 와 관련된 사람들.
- 긴급 수배가 되는 블록체인 개발자 박보현.

## 113. 경찰청장실 - 오후

뉴스를 보고 있는 경찰서장, 신경질적으로 TV를 꺼버린다.  
앞에는 서장과 광수대 팀장이 수사 보고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청장 (결제 파일을 펼치며) 검정 봉투 소재는?  
광수팀장 .. 수사 중입니다만.. 짝퉁도 많고 계정만 수백개라 확인하는데 시간이..  
청장 에브리씽인가 뭔가 하는 것도?!

서장 (눈치 보며) 사이버팀과 광수대 전원을 투입해서 관련 조직을 털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접속 로그파일을 찾는 중인데..

청장 (벌떡 일어나며) 이 새끼가!! 큰일 날 짓 하고 있네. 애들 복귀 시켜!! 빨리!!

서장 .. 네?? 그게 무슨..  
청장 사람을 잡아야지 애긔은 돈을 왜 쫓아??!!

서장 .. 거래 내역이 있어야 범죄 사실을 증명...

청장 서장이라는 새끼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 쳐 먹어!! 에브리씽 하루 거래액이 100억 넘는다며? 그 안에 누가 있을 줄 알고. 광화문이랑 여의도 분들 팔려 오면 책임 질래? 게다가 재수없이 우리 회사 식구나.. 가족이라도 걸려봐. 안 한다는 보장 있어? 없어?

서장 (그제야 고개 끄덕) ...

청장 (수사 보고서 던지며) 정의만 보이랴구. 먼지 안 나게!!

서장 (얼른 집어들며) 보강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청장 (머리 지끈지끈 만지며) 제발 좀 단디해라. 단디..

#### 114. 병원 응급실 앞 - 저녁

방송국 스텝들과 병원에서 나오는 상진.

지민을 보더니 스텝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더니 다가간다.

지민      괜찮으셔?  
상진      생명에는 지장 없으시대. ,, 대신 시력은.. 후보도 사퇴하신데..  
지민      (자책한다) ...  
상진      너 탓 아냐.  
지민      박보현 그 새끼는??!!  
상진      경찰이 쫓고 있는데.. 흔적이 없어.  
지민      췌장암 말기라.. 언제라도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복수심으로 버텼을테니까.  
            에브리씽은?  
상진      소탕 중인데..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힘든가봐. 동은철은 아직이고..  
지민      (얼굴 굳어진다) ..  
상진      걱정마. 서울시장 후보가 테러 당했어. 그냥 못 넘어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지민      (서류 봉투를 건네준다) ..  
상진      뭐야 이게??  
지민      결혼 선물~  
상진      (봉투 열면 검정 봉투 와 관련된 자료다) .. 괜..찮겠어?  
지민      박보현 복수가 마무리되는 순간 검정 봉투 도 끝났어.  
상진      (자료를 확인하며)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할게. 약속해. ,, 결혼식.. 올 거지?  
지민      (찌릿 쏘아보며) 신부 기 죽일 일 있니?!  
상진      너.. 그 정도 아니거든~  
지민      (웃으며) 행복해라~~  
상진      너도. 행복해라~~

짓궂게 장난치며 웃는 지민과 상진, 말없이 웃기만 하고, 돌아서더니 헤어진다.  
화면 어두워진다.

#### 115. 지민 일상 몽타쥬

- 차분한 음악과 함께 화면 밝아지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공시 인강을 듣는 지민, 따라 암기하고.
- E-WASTE에서 작업을 하는 지민.  
이전처럼 포클레인을 기계처럼 운전을 한다.
- 식당에서 직원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있는 지민.  
황사장과 예원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지민을 보고 씨익 웃고 지나간다.
- 작업대 전자 폐기물에서 빠른 속도로 부품을 분리해내는 지민.  
동기 모임 카톡이 오지만, 열어보지도 않고 작업을 이어나간다.

- 뉴스에서 검정 봉투 의 심층 취재를 보도하는 상진.  
지민, 상진의 뉴스를 보던 폰을 끈다.

-퇴근 준비로 분주한 직원들, 지민도 직원들이랑 장난치며 퇴근을 하는데...  
알람이 뜨고, 확인하는 지민, 순간 눈이 커진다.  
검정 봉투 가 다시 열렸다!!

### 116. 거리 - 오후

정신없이 달리며 전화를 거는 지민,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멈추고, 인스타를 여는데...  
신부와 함께 께 결혼식 예복을 고르고 있는 미소 띤 상진.  
지민, 택시가 지나가자, 도로로 뛰어든다!!

### 117. 웨딩샵 - 오후

진동음이 울리는 상진폰.  
상진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느라 바쁘다.  
신부 손에 이끌려 다른 옷을 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는 상진.  
상진 폰이 계속 울린다.

### 118. 택시 - 오전

상진에게 메시지 남기는 지민, 폰으로 검정 봉투 를 확인하고,  
새롭게 올라온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들!!

### 119. 검정 봉투 유튜브

화려한 색감과 장난스런 배경 화면, 머리에 검정 봉투 를 쓴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카메라를 돌아보다 ㅋㅋ.. 웃음 짓는 검정 봉투 !!  
장난끼가 더 많아진 분위기다.

검정 봉투                      안녕하세요. 검정 봉투 입니다.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이 있  
었잖아요~.

무려 30조 원을 홀라당 날려 먹은 솔론 대표부터 군대 간 남자 친구를 자살하게  
만든 BI, 은퇴자 퇴직금을 모두 등쳐먹은 사기꾼 리딩방, 반 친구에게 성매매까지  
시켜온 학폭 중딩, 그리고 정의와 양심으로 과대 포장된 시장 후보까지...

세상을 좀먹고 독을 내뿜던 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검정 봉투 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 수사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인간 쓰레기들을 발굴해 소각할 계획입니다. 두렵지 않냐구요?! 그게 왜요??  
 검정 봉투 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전하니까. 경찰 따위가 비빌 곳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소개됐듯이 현존하는 보안체계 중에서 최상위 수준을 자랑합니다.  
 검정 봉투 가 털리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도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검정 봉투 를 믿고 사랑해주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독을 쏟아내는  
 쓰레기 후보와 함께, 저..., 검정 봉투 를 선정했습니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ㅋㅋ~

검정 봉투 가 사라지면, 화면 가운데 떠오르는 쓰레기 후보들.

1. 20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좋은 재료로 해장국집 하는 인심 좋은 노부부.

2. 얼굴을 감추고 사회의 악을 처벌하는 검정 봉투

3. 가난한 연인을 버리고 금수저 여자와 결혼하는 기레기 방송국 기자.

검정 봉투                      이번엔 너...무 쉽죠? ㅋㅋ.. 이들 중에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최  
 종 쓰레기로                  선정돼 소각될 것입니~ ㅋㅋ..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당신은 누구 선택  
 하겠습니까?”

곧, 후보들 위에 타임리밋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밑으로 시뻘건 불꽃이 활활 익살스럽게 타오른다.

## 120. 택시 - 오전

택시 안에서 짹 검정 봉투 를 확인하는 지민.

누가 봐도 ‘좋아요’를 많이 받을 3번째 후보, 상진 사진이 올라와 있고,

증거 자료들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사진, 동영상, 메시지들이다.

빠르게 올라오는 댓글들!!

- 뭐얌? 이걸 거의 몰표겠는데..
- 근데도 3번이 배당률이 떨어지지 않아. 대박!!
- 헐~ 이러면 누가 봐도 3번을 찍을 거잖아.
- 아냐 아냐.. 검정 봉투 가 누군데? 쪼르는 손 맛 하나 끝장이잖아. 분명 트릭이 있을 거야.

그때 에브리씽 공지가 뜬다.

이번 쓰레기 소각은 특별 이벤트가 있을 예정. 무지무지 엄청 기대하세요~~

곧바로 달리는 댓글들!!

- 특별이벤트라.... 급발진하게 만드네.
- 그럼 어떻게 소각시키느냐가 관건인가?
- 아무래도 엽기! 발랄!! 소각시키면 배당률이 훨 더 오르겠쥬~
- 결혼한다니까 세트로 알콩달콩 불 질러버릴꺼얌~~ ㅋㅋ
- 맞아. 기레기가 제대로 지 일 했어봐.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 쓰레기는 죽여도 돼!!

윤재국이 마지막이아니었나??!!  
당혹감이 역력한 지민.

지민 (기사에게) 좀 더 빨리 가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부우웅!!’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지민이 탄 택시.

## 121. 웨딩샵 - 오후

‘덜컹!!’ 문이 열리고, 뛰어 들어오는 지민,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숨을 헐떡이는 지민을 보며 의아해하는 직원.

지민 (숨을 거세게 몰아쉬며) .. 고상진... 고상진.. 어딴가요?  
매니저 (가웃) 아... 고기자님요? .. 누구??  
지민 ..오빠요.. 오빠..  
매니저 (의심) .. 아들 혼자라고 했는데..  
지민 사촌 오빠. 사촌 오빠..  
매니저 (여전히 의심의 눈길) ..  
지민 어딴어요. 고상진??  
매니저 (고민) ..  
지민 위험하다니까... 상진이 죽게 생겼다구요!!

## 122. 고급 식당 - 오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살피는 지민.

직원1 (다가오며) 예약하셨나요?  
지민 헉헉... 웨딩 사진 찍는 신랑 신부 어딴어요?!  
직원1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지민 착하고 톡톡하게 생긴 신랑이랑 이쁜 신부 말이에요. 어딴어요?!  
직원1 손님..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지민 둘 다 죽게 생겼다구요!! 검정 봉투 가 노린다니까!!  
직원1 (멈칫하다 사무적으로) 검..정봉투요??  
지민 검정 봉투 .. 안 해요? .. 미치겠다..  
직원1 보시다시피.. 웨딩 촬영하시는 손님 없구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지민 (다른 곳을 확인하며) 어디 간 거야? 대충 결혼식 좀 하지..  
직원2 .. 저기요.. 그 분.. 고상진 기자님 맞으시죠?

보면, 옛되어 보이는 직원2가 지민에게 다가온다.

지민      맞아요. 고상진. 왔어요?  
 직원2    촬영하고 가셨거든요.  
 지민      (입술을 깨문다) ..  
 직원2    마지막 촬영이 놀이동산이라고 했는데..  
 지민      마지막 촬영?? 어디 놀이동산요?!  
 직원2    이름은 저도 잘..  
 지민      (얼굴 일그러진다) ..  
 직원2    서울 근교 폐업한 놀이동산이라고 했어요.  
 지민      폐업한 놀이동산??!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카페를 뛰어 나가는 지민.

직원2, 고개 갸웃하다 주방으로 가고.

지켜보던 직원1, 입맛을 다시다 폰을 꺼내 에브리씽 앱을 열고, 에브리씽 검색 봉투 다!!

- 3번을 구하러 온 백기사 등장!! 이게 오늘 특별 이벤트?? ㅋㅋ

곧바로 올라오는 댓글들.

- 이번 스테이지는 찐이야.

- 병신!! 이건 게임이 아니라 리얼이라구. 리얼!! 에브리씽 덕분에 하던 게임이 다 시들해졌거든~~

- 씨바.. 게임도 오프라인과 연동해서 플레이하면 죽일텐데.. 게임 기획자들 좇잡고 반성해야 됴.

- 또 뭐가 튀어나올지 텐션 백배 상승!!

- 이참에 백기사도 소각시키면 배당률이 더 올라가겠지?

- 화끈하게 불태워버리자구요~~ ㅋㅋ

-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자신이 올린 댓글에 다른 댓글이 연속으로 달리자, 직원1 얼굴에 섬찝한 미소가 흐른다.

### 123. 폐업 놀이동산 앞 - 해질 무렵

문 닫은 놀이동산 앞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세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지민.

폰으로 상진 인스타를 확인하는데, 사진이 올라왔다!!

시간이 멈춘 놀이동산에서 신부와 찍은 상진 사진이다.

지민      헉헉.. 웨딩 사진을 망한 놀이동산에서 찍냐??!! 무슨 컨셉인데!!  
 전화는 왜 안 받아. 힘들어 죽겠구만.. .. 헉헉!!

폰으로 수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지민.

녹슨 문이 열린 틈으로 기를 쓰고 안으로 들어간다.

### 124. 폐업 놀이동산 - 저녁

을씨년스러운 놀이동산에 어둠이 깔린다.  
놀이동산을 뛰어가며 상진을 찾는 지민.  
그때 웃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쉬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달려가 보면..., 상진과 신부가 사랑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웨딩 사진을 찍고 있다.  
땀에 젖은 지민을 보고 놀라는 상진과 당황하는 신부.  
주변 사람들도 헉헉대는 지민과 놀란 상진을 보며 수군거린다.

상진 (웃으며) 설마.. 결혼 전 깜짝 고백 같은 거 아니지?  
지민 미친!! 전화는 왜 안 받아?  
상진 결혼식 준비해 봐.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셨다. 이리 와. 신부 소개 시켜줄게.  
지민 됐고. 빨리 여기서 나가.  
상진 ..뭐??!!

상진에게 폰을 보여주는 지민.  
지민 폰에서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보던 상진, 놀라워하다 씩씩하게 웃는다.

지민 지금 웃을 일이야?? 그 새끼들 장난아니라구!! 널 노리는 거야!!  
상진 ..박보현 말이야.  
지민 박보현? 너랑 상관없잖아?  
상진 첫 기사. 내가 썼어. .. 인턴 때.  
지민 뭐??!!  
상진 그때 박보현이 성폭행 한 걸로 확신했거든. 윤후보님도 그때 알게 됐고.  
지민 !!  
상진 윤후보님 병원에서 얘기하려고 했지. 네가 검정 봉투 자료를 주더라. 내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 오늘 검정 봉투 마지막 방송 나가고 정정보도까지 나갈거야. 박보현에겐 충분하지 않겠지만..

상진의 말에 멍해진 지민, 얼굴이 일그러진다.

지민 몰라. 됐고!! 지금 위험해. 놈들이 노릴거야. 너와 신부까지!!  
상진 (얼굴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  
지민 나가자. 빨리!!

신부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는 상진.  
황당해하는 신부, 상진 말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초조해하는 지민, 놀이동산에 라이트가 하나둘씩 꺼지고, 짙은 어둠에 잠긴다.  
당황해하는 지민과 사람들.  
곧, 적막한 놀이동산 기분 나쁜 소리들이 들려오고,  
보면, 상진과 신부 주위로 모여드는 검은 그림자, 다들 무기를 손에 든 검정 봉투 들이다.  
공포스러운 광경에 몸이 얼어붙는 상진과 신부.  
지민, 폰으로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확인하면,  
녹색 점 주위로 원으로 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고, 붉은 점들이 몰려든다.

## 125. 폐업 놀이동산 - 밤

불 꺼진 놀이동산을 달리고 있는 지민.  
그 뒤로 상진과 신부이 뒤따르고,  
그런데 겁에 질린 신부가 점점 뒤 처진다.  
앞서 나가던 지민, 신부에게 다가가고, 구두 뒤축과 웨딩드레스 레이스를 제거한다.  
점점 가까워져오는 검정 봉투 괴성들!!  
지민, 다시 달려 나가고, 상진은 신부 손을 잡고 달린다.

## 126. 놀이동산 기구 - 밤

지민과 함께 놀이동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진과 신부.  
그 뒤로 각종 흥기를 든 검정 봉투 들이 쫓아 온다.  
상진과 신부를 올려보내는 지민.

상진      넌?  
지민      신부나 잘 챙겨.  
신부      같이 가셔야죠.  
지민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신부      상진에게 얘기 들었어요.  
지민      ..??  
신부      힘들 때 도움 많이 됐다고.  
지민      (상진을 보며) 좋은 녀석이에요. 무조건 결혼식 올려요. 어서 가요!!  
상진      (망설인다) ..  
지민      경찰 올 거니까. 가. 빨리!!  
신부      그래도 같이 가셔야..  
상진      (손 내밀며) 같이 가!!

한숨 쉬던 지민, 출발 버튼을 누른다.  
‘끼익!!’ 기계음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놀이동산 기구.  
신부는 눈물을 흘리고, 상진은 그런 신부를 안아준다.

지민      .. 난 누가 지켜주나..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검정 봉투 들.  
지민, 미쳐 날뛰는 검정 봉투 들을 막고 쓰러트린다.  
하지만 검정 봉투 들의 광기에 점점 밀리고,  
사력을 다해 몸을 피하는 지민, 그 뒤를 쫓아 오는 검정 봉투 들.  
순간, ‘부웅!!’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지민을 밀치고 멈춘다.  
길바닥에 쓰러진 지민, 은철이 다가온다.

지민      아직 도망 안 갔냐?  
은철      (상진과 신부가 탄 기구를 가리키며) 저 놈년들 목 따고.

박보현 그 새끼가 마지막 미션이란다. 그 전에 너부터 잘게 잘게 쓸어줄게.

지민 (키득) .. 넌 끝났어. 새까~

은철 (황당하다) ??

지민 (폰 보여주며) 이거 라이브로 방송되거든. 지금쯤 난리났을 거야.  
너 잡으면 2계급 특진~

은철 이 미친 년이...

지민 네 얼굴 까졌으니.., 끝장 난 거지!!

은철 (쏘아보다 웃는다) ㅋㅋ.. 상관없어. 성형 수술하면 되니까. 이미 배편까지 예약해 뒀어.

지민 참.. 부지런하게 지랄한다..

은철 하나 궁금한 게 있어. .. 박보현 타켓이 어떻게 네 손에 들어갔을까?

지민 너.. 아냐?!!

은철 네가.. 박보현과 관련 있는 줄 알고 계속 놔두고 지켜봤거든~  
근데 넌 경주마였어. 먹이만 보고 미친 듯이 달리는.. ㅋㅋ..

지민 (눈이 커지며) 뭐?!!

은철 (어깨 으쓱하더니 덩치들에게) 뭐해?! 저 것 썰어!!

은철 부하들이 지민에게 다가가고, 대항하는 지민, 점점 짓이겨진다.

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지민.

검정 봉투 들도 지민 주위로 모여들고.

은철, 쓰러진 지민에게 다가가며 칼을 꺼내는데..,

그때 모여든 검정 봉투 중에 이전에 봤던 몸집 작은 검정 봉투 가 지민을 보며 장난하듯 손 흔들고,

지민 목에 칼을 갖다 대는 은철, 손에 힘을 주는데,

순간 폰 알람이 울린다. 여기저기서!!

폰을 확인하던 검정 봉투 들, 기이한 분위기가 흐르고.

일제히 은철과 부하들을 쏘아본다.

멈칫하던 은철, 폰을 보면, 검정 봉투 가 예고했던 특별 이벤트가 떴다!!

**오늘의 특별 이벤트!!**  
**배당률 기존보다 100배!!**  
**최종 쓰레기 후보는...**  
**동은철~~**

은철의 프로필이 에브리씽 검정 봉투 에 새로 업로드됐다.

사진과 함께 그동안의 악행들이 낱알이 적혀있고,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들이 주룩룩 올라온다.

**소각된 쓰레기 후보와 사진만 찍어도 모든 혜택 쿠폰 발행!!**  
**덤으로 에브리씽 평생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폰으로 에브리씽 검정 봉투 를 보던 지민, 웃음을 터트리고,

몸집이 작은 검정 봉투 , 얼어붙은 은철을 매섭게 쏘아본다.

이벤트 공지를 확인한 검정 봉투 들, 서로 눈치를 보다 흥기를 들고 은철에게 다가간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은철.

은철      박보현.. 이 미친 새끼!! (덩치들에게) 검정 봉투   쓴 미친 새끼들부터 처리해.

은철 지시에, 연장을 든 부하들, ‘푸욱!!’ 은철 가슴에 칼이 뚫고 나온다.

은철      (비틀대며) 허억!!!

뒤에서 가슴을 뚫고 나온 칼을 보며 못 믿겠다는 듯 허우적거리는 은철.

동시에 은철 머리를 강타하는 쇠 파이프!

비틀거리는 은철 다리를 부러트리는 망치!

쓰러진 은철 허리에 연달아 내려 꽂히는 해머!!

‘아악!!!!’ 피 떡이 된 은철을 자근자근 도륙하는 검정 봉투 와 은철 부하들.

은철      (피 토해내며) 쿨럭! 쿨럭!! .. 씨발... 세상을 더 불살라 버릴 수 있었는데.. 쿨럭!!!!

결국 길바닥에 얼굴을 처박는 은철, 자신이 쏟아낸 시뻘건 피 웅덩이에, .울컥거리다 익사한다.

피 묻은 흉기와 살해된 은철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는 검정 봉투 들과 부하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죽은 은철을 쏘아보던 몸집 작은 검정 봉투 , 지민을 보더니 손 흔들며 자리를 떠나고,

검정 봉투 들도 빠르게 흩어져 사라진다.

점점 눈이 감겨오는 지민, 화면 어두워진다.

## 127. E-WASTE 폐기물 집하장 - 오전

검은 화면 위로 소음이 들려오고,

화면 밝아지면, 기계 팔을 치켜든 포클레인이 폐기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포클레인으로 폐기된 전자기기들을 능숙하게 선별하는 지민.

한 치 오차도 없는 지민의 포클레인을 따라 작업자들이 전자 제품들을 수거해낸다.

집하장을 지나가는 황사장, 포클레인 안에 있는 지민을 보며 씨익 웃고,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포클레인을 운전하던 지민, 멈추더니 운전석에서 내린다.

디지털 폐기물을 움켜쥔 포크레인 팔에 다가가는 지민,

폐기물 더미 안에서 오래된 폰 하나를 찾아낸다.

폰에 달려있는 귀여운 곰 인형이 흔들거리고!!

폰을 쳐보자, 스르르 화면이 보여지고.

바탕 화면 속에는 백발의 인자한 할머니와 새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 128. 새봄 몽타쥬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 새봄의 할머니 폰을 들고 청소년 센터를 찾아가는 지민,
- 여러 곳을 전전하고, 마침내 새봄이 있던 센터를 찾아낸다.
- 지도사에게 새봄의 근황을 묻는 지민.

지도사 (서류를 보며) 좋은 아이였어요. 말이 없고 좀 엉뚱했지만..., 잘 있으면 좋겠네요.  
나간 지 꽤 됐거든요.

정새봄 서류에는 가족은 '무'로 적혀 있고, 다니던 학교 이름이 있다.

- 학교 교무실에서 새봄 사진을 보여주며 근황을 묻는 지민.
- 힘없이 교무실을 나오는 지민, 자기들끼리 웃고 장난치며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을 본다. ,  
그 위로 들리는 나레이션.

선생님 (소리)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했어요. 몇 차례 붙잡았지만, 심지가 굳은 아이거든요.  
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 새봄 소식을 알 수가 없네요.  
나쁜 길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 조용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보며 한 숨을 내쉬는 지민. 힘 빠진 채 교문을 나간다.

(소리) 저..가요..

보면, 지민을 부른 학생이 서 있고, 이전에 주연에게 학폭 당하던 경주다.  
지민에게 쪽지를 건네주는데...

## **129. 아파트 단지 - 오후**

해가 니엃니엃 저물어간다.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지민.

재건축 신청을 알리는 오래된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낡고 을씨년스러운 아파트다.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한적하다.

경주가 준 쪽지로 동호수를 확인하는 지민.

107동 502호. ... 찾았다!!

## **130. 새봄 아파트 입구 - 오후**

아파트 입구 우편함을 확인하는 지민,

수북히 쌓인 다른 집과 달리 새봄 집 우편함은 깨끗하다.

새봄이 좋아하는 바나나우유와 단팥방이 든 쇼핑백을 확인하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지민.



### 131. 새봄 집 앞 - 오후

초인종을 누르는데.. 고장 나 있다.  
주소록에서 새봄 전화를 확인하는 지민, 새봄 연락처가 없다.  
‘똑!똑!’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인기척이 없다.  
문 앞에서 서 있는 지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문 안에서 희미하게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온다.  
디지털 도어 록을 보는 지민, 번호를 누르고, 744699. 새봄에게 줬던 ‘E-WASTE’ 번호다.  
순간, ‘빠릭!!’ 열리는 아파트 현관문!!  
놀란 지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

### 132. 새봄 집 - 오후

천천히 집으로 들어온 지민.  
집 안에는 삶의 흔적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리저리 둘러보는 지민.

지민      정새봄~ .. 나야 지민 언니~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지민, 할머니 폰을 들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가는데,  
방에는 각종 응급 치료 기계들이 있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누군가!!  
놀라는 지민, 다가가면,  
오래전부터 의식을 잃은 듯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  
눈이 커지는 지민, ... 에브리씽 개발자 박보현이다!!  
주춤주춤 물러나는 지민, 당혹감이 역력하다.

(소리)    역시.. 언니답네요~

흠칫 놀라 뒤돌아보면, 새봄이가 쇼핑백을 들고 서 있다.  
경악하는 지민을 지나쳐 침대에 누운 박보현에게 다가가 새 간병 도구를 교체하는 새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해온 듯 능숙하다.  
점점 얼어붙는 지민.

새봄      (지민 손에 든 폰을 보며) 찾았네요~ 할머니 폰!!

지민      (주춤주춤 물러나며) ..이 사람은..??

새봄      (생명유지 장치를 체크하며) 맞아요. 박보현. .. 우리 아빠~

지민      넌... 정새봄이잖아..

새봄      아빠 감옥 갔을 때 엄마 성으로 바꿨죠. 그때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아빠 망가트린 쓰레기가 검정 봉투 에 나오는 걸 봤죠.

개쓰레기 목사 말이에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지민      ..너.. 날...

새봄      당연하죠~ 언니 일하는 곳에 쓰레기들 자료를 갖다 놓았죠.

- 늦은 새벽.

불 꺼진 지민 작업실 작업대에 몰래 들어온 새봄.

지민이 검정 봉투 를 위해 모아둔 폰에 슬쩍 폰을 갖다 내려놓고 나간다.

지민      솔론, 김시현, 정우진, 윤재국.. 그럼 주연이는?

새봄      (손 흔들며 웃는다) ..

지민      설마??!!

- 플래쉬백

쓰러진 지민, 일어나는데, 검정 봉투 들이 달려와 발길질을 내갈긴다.

‘퍽! 퍽!! 퍽!!!’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뒹구는 지민.

그런 지민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몸집 작은 검정 봉투.

지민과 눈이 마주치자 장난스럽게 손을 흔드는데, 놈은 분명 웃고 있다.

새봄      맞아요~ 주연이는 같은 반 학원 단짝 친구였죠. 우리 집이 망하기 전까지는요~

아빠 기사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고, 없는 사실에 가짜 뉴스까지 올리는 바람에  
댓글창이 폭발했죠. .. 덕분에 학교생활은 지옥이 되버렸구요~

- 학교

교실로 들어가는 새봄.

같은 반 아이들이 새봄을 쏘아보고, 새봄 책상에 '성추행범 딸'이라고 낙서가 되어있다.

폰으로 박보현 기사에 댓글을 쓰는 주연

"성범죄자 딸년이랑 같은 학교 다녀. 하는 짓이 지 애비랑 똑 같아. 더러워!!"

복도를 지나가는 새봄.

주연이 친구들이랑 지나가며 폰으로 박보현 기사를 보며 히히덕거린다.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는 주연,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문 열고 나가면, 킁킁거리며 나가는 주연 무리들

새봄      그래도 언니한테는 진심이었어요. 검정 봉투 에 응원 댓글까지 매번 달았쥬는데~

지민      .. 궁..서체??.

새봄      (주사약을 주사기에 꽂으며) 언니 말대로 세상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언니 겁먹고 검정 봉투 달았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검정 봉투 를 다시 열었죠.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잖아요~

지민      .. 그럼 에브리씽도 내가 한 거니??

- 교도소 면회실

죄수복 입은 박보현, 면회 온 새봄에게 보내온 새봄 편지를 보여준다.

편지 안에는 새봄이 만든 코딩이 적혀져 있고, 박보현이 붉은 펜으로 수정된 보여준다.

아빠의 수정된 코딩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종이에 따라 적는 새봄.

새봄 설마요.. 제가 아무리 이것저것 배웠지만, 아빠를 대신할 순 없죠~  
지민 그럼??!!  
새봄 (침대 패드를 교체하며) 아빠가 아파 출소한 뒤 에브리씽을 만들었어요.  
항암 치료도 포기한 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약도 다 끊구요~  
전 아빠가 완성한 에브리씽에 1% 손가락만 얹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역시 아빠는 능력자라니까~  
동은철에게 연락하니까 미친 듯이 좋아한 거 있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 새봄 집

어둠 속에서 모니터 화면이 빛나고 있고, 옆에 수십 개의 의약품 병들이 놓여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박보현, 극심한 고통에도 이를 악물며 키보드를 두드린다.  
모니터 위로 빠르게 만들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새봄은 진통제를 주지만, 한사코 뿌리치며 코딩에 열중하는 박보현.  
곧, 모니터에 'EVERYTHING - BUILD COMPLETE' 메시지가 뜬다.  
박보현이 의자에서 힘없이 미끄러지듯 쓰러지고, 그런 아빠를 부축하는 새봄.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지민 ..새봄아..

새봄 동은철.. 진짜 나쁜 개쓰레기거든요. 빗 독촉으로 엄마까지 자살하게 만들고..  
나머지 쓰레기들이랑 결국 천벌 받은 거죠~

-장례식장

엄마의 폰에서 동은철의 험박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장면.  
눈물을 삼키며 자료를 저장하는 새봄.

새봄 아빠 첫 기사 쓴 그 기자 오빠도.. 휴우.. 언니 아니었어봐요. 그냥 소각했죠.  
처음으로 제 원칙 어겼다니까요~~

지민 (놀란다) !!

새봄 좋은 세상은 없겠지만, 좋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언니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지민 이제.. 다 끝났어.

새봄 옹??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데~

지민 뭐??!!

새봄 이제 세상도 알겠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당하면 어떤지..

새봄이 키보드를 누르자, 에브리씽과 검정 봉투 에 접속했던 사용자 정보가 빠르게 떠오르고,  
지도에 수많은 사용자들 위치와 정보가 연동된다.

새봄 에브리씽 보안과 안전성이 짝잡아요. 아빠 생명을 다 쏟아 붙었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맘 놓고 저질러겠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어요~

지민 (지도에 에브리씽 사용자들 정보를 보며 놀란다) .. 너.. 설마..

새봄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겠죠. 온라인에서 무책임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는지 지켜볼 거예요.

지민 새봄아..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새봄 (빙긔) 언니.. 에브리씽에 쌓인 돈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지민 (움찔) !!  
 새봄 어마어마하게 모아 댔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구요~~  
 지민 설마... 그 조직 돈을 건드렸니?  
 새봄 에이... 개네들 꺼 아니예요. 에브리씽 돈이지~  
 지민 위험해.. 너무!!  
 새봄 걱정마요. 절 믿어봐요~  
 그 돈이면 세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를 영입하고 싶어요. 파격적으로.. 수익은 반반. ㅋㅋ~  
 지민 .. !!  
 새봄 대신, 이걸 눌러야 되요.

키보드를 건네주는 새봄.

지민 에브리씽에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경찰이 해결할 거야.  
 새봄 설마.. 아직도 세상을 믿어요?!  
 에브리씽에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높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말을 하려다 새봄의 차가운 독기에 아무 말 못하는 지민.

새봄 엔터 키 누르면... 검정 봉투 에 베풀한 사람들 모두가 쓰레기 후보가 되요.  
 지민 (놀란다)!!  
 새봄 낄낄거리며 서로를 노리다 자기들도 소각되겠죠. 그들이 했던 것 처럼요.  
 지민 ..새봄아!!  
 새봄 아니면 삭제키 눌러요. 그럼 에브리씽은 사라져요.  
 사용자 정보와 함께.. 돈까지도요. 물론, 하고 싶던 일도 포기해야겠죠~  
 지민 (움찔한다) !!  
 새봄 (키보드 내밀며) 자... 그럼. .. (검정 봉투 처럼 장난스럽게 웃으며)  
 “쓰레기들을 소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지민, 새봄이 내민 키보드의 엔터키를 바라보고, 빙긔 웃는 새봄.  
 삭제와 엔터키 사이에서 망설이는 지민, 천천히 키보드를 누른다.

순간, 서버에서 ‘우웅!!’ 소리와 함께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동시에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메인 서버와 모니터들.

곧, 온라인에서 정체를 감춘 채 타인을 괴롭히고 상처 줬던 사람들 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떠오른다.

이제 검정 봉투 쓰레기 후보가 되어 서로를 노리기 시작하는 검정 봉투 사용자들!!,  
 지민을 보며 환하게 웃는 새봄과 얼굴 굳은 채 새봄을 바라보는 지민,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 화면 꺼진다!!

### 133. 에필로그

‘찌직...’ 노이즈 소리 들리고, 유튜브에 영상이 뜬다.

어두운 길가를 걸어가는 여중생.

검은 실루엣이 여중생 뒤를 따라오다 갑자기 밀치고.

몸이 얼어붙은 채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여중생, 반항을 해보지만 무기력하다.

그때 검은 실루엣을 밟아버리는 누군가!!

누군가의 연속된 발길질에 길바닥에 쓰러지는 검은 실루엣!!

겁에 질린 여중생에게 그만 가보라며 손짓하는 누군가...

공포에 질려있던 여중생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 숙이며 사라지는데...

쓰러져 꿈틀거리는 검은 실루엣에게 마지막 발길질을 하는 누군가.

사라지다가 CCTV를 향해 획 고개 돌리면,

머리에 하얀 봉투가 씌워져 있다.

CCTV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하얀 봉투!!

유튜브 이름에 ‘하얀 봉투’가 뜨고,

세상에 행복을 나누는 의인(義人) 후보 3명이 올라와 있다.

화면, 노이즈와 함께 꺼진다!!

to be continued...